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배 지 희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외동이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담론 분석

2011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유아교육전공
공 경 아

외동이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담론 분석

배 지 희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유아교육전공

공 경 아

인 준 서

공경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에서는 교사와 학부모의 담론을 통하여 교사들이 외동이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교사들의 현장 속 이야기를 통해 나타난 외동이의 특징과 그들의 학부모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외동이를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교사들의 생각은 어떠한지를 알아보고 외동이의 양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생각과 기대는 어떠한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외동이에 대해 교사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2. 외동이의 학부모에 대해 교사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3. 외동이를 효과적으로 지도하는 방법에 대한 교사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4. 외동이의 양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생각과 기대는 어떠한가?

본 연구에서는 2010년 10월 16일부터 2011년 3월 12일까지 약 5개월 동안 10명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최소 1회에서 3회의 집단면담을 실시하였다. 학부모 10명과의 개별면담은 총 10회가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인 사례나 논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와 e-mail을 통하여 추가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모두 외동이를 지도해본 경험이 있으며 현재도 외동이를 지도하고 있는 현장의 교사들이다. 자료 수집은 현장 약기와 녹음을 통해 자료가 포화될 때까지 이루어졌으며 자료 분석을 위해 면담자료 전사본과 현장노트에 기록된 내용을 분류하고 범주화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연구문제에 따라 외동이에 대한 이야기와 외동이의 학부모에 대한 이야기, 외동이를 효과적으로 지도하는 방법, 외동이의 양육에 대한 학부모의 생각과 기대로 범주화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들의 담론 속에서 나타나는 외동이에 대한 교사들의 생각을 분석한 결과 먼저 교사들은 외동이들을 다른 유아들에 비해 이기적이고 고집이 세며 욕심이 많은 자기 중심적인 아이로 여기고 있었다. 또한 외동이들은 혼자 키워져서 나누고, 공유하고, 순서를 지키고, 양보하고 주고받는 사회적 기술이 부족한 나뉘이 부족한 아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외동이는 형제자매가 없으므로 부모들의 관심을 받고 자라며 과보호를 받는 영향으로 인하여 부모에게 의존적인 아이로 인식되었다. 또한 외동이는 부모, 주변의 충분한 관심과 물질적, 정신적 배려 및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으며 이러한 행동이 유치원에서도 지속되어 교사의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아이로 여겨졌다. 이외에도 교사들은 외동이들이 주로 가정에서 어른들과 대화하는 환경에 놓이며 어른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둘째, 본 연구 결과 교사들은 외동이 학부모만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동이 학부모들은 전반적으로 첫 아이 학부모와 비슷한 성향을 보인다고 이야기 하였고 다른 학부모에 비해 걱정도 많고 질문도 많으며 본인들의 양육방식과 교육관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들은 외동이 학부모들의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 양육방식이 다르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교사들의 담론 속에서 외동이를 효과적으로 지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외동이에게 칭찬과 격려를 함으로써 외동이와 긍정적인 관계

를 형성해나가야 한다고 교사들은 이야기하였다. 또한 혼합 연령의 교실 구성, 다양한 연령과의 만남의 기회 제공, 다양한 연령이 함께하는 정기적인 기회 제공을 통하여 외동아들이 다양한 연령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의도적으로 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외에도 교실에서 친구들과 모둠수업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외동아의 사회적 관계 기술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교사들의 담론을 통하여 나타났다.

넷째, 개별면담을 통해 나타난 외동아 양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생각과 기대는 다음과 같다. 먼저 외동아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존재하므로 편견 없이 외동아의 긍정적인 측면을 바라봐주었으면 좋겠다고 학부모들은 이야기하였다. 또한 외동아들이 가정에서와 같이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교사의 인정을 받으며 자신감을 갖게 교육해 달라고 학부모들은 이야기하였으며 이외에도 사회적 차원에서 친구 사귀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5
3. 연구자	6
II. 이론적 배경	9
1. 외동이의 특성	9
2. 외동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	12
3. 선행연구	14
III. 연구방법	16
1. 연구 참여자	16
2. 연구절차	26
3. 자료분석	31
IV. 결과 및 해석	33
1. 외동이에 대한 교사들의 생각	33
2. 외동이 학부모에 대한 교사들의 생각	41

3. 외동이를 효과적으로 지도하는 방법 46
4. 외동이 양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생각과 기대 51

V. 논의 및 결론 57

1. 논의 및 결론 57
2. 제언 66

참 고 문 헌

ABSTRACT

표 목 차

<표 1>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의 배경	21
<표 2> 연구에 참여한 학부모들의 배경	26
<표 3> 교사 면담 일정	29
<표 4> 학부모 개별 면담 일정	31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재 우리나라는 과거에 비해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여성의 사회 진출, 결혼 연령의 상승,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함에 따른 출산율 저하로 외동이를 갖는 가정이 증가하였다. 또한 부모의 지적 수준이 높아지면서 전업 주부임에도 자아실현을 강조하는 엄마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특히 높은 사교육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도 더해져 계획적으로 한 자녀만을 가지는 가정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채경미, 2009). 이 문제에 관하여 김덕희(2005)는 출산율의 저하는 자녀수의 변화를 가져오고 자녀에 대한 가치관과 더불어 노후보장의 기대감소 등 자녀에 대한 부모들의 기대양상을 변화시킴으로써 외동이를 자녀로 둔 부모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 이는 외동이를 지도해야 하는 유치원 교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외동이들의 특징을 파악하고 외동이를 자녀로 둔 부모에게 부모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등의 과제를 가지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출생수준은 1983년 이래로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인구대체수준이하의 저 출산 사회로 진입하였고(보건복지부, 2006), 통계청(2009)의 출산통계에 따르면 올해 3월 출생아 수는 약 3만 9천 9백 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400명(-3.4%)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2009년의 합계 출산율은 1.19명으로 총 출생아 중 첫째 아이인 경우는 꾸준히 늘고 있으나 둘째아 이상의 비율은 줄어들고 있어 ‘한 가정, 한 자녀’인 ‘외동이 시대’가 되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새로운 출산이 적게 이루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가족원 수가 더욱 감소하여 소가족화가 가속화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녀수의 변화는 외동이를 자녀로 둔 학부모의 수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유치원 현장에서도 외동이를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외동이의 사회적 증가 추세에 맞추어 2007 개정 교육과정 사회생활 영역에서도 가족 구조의 변화를 개정의 배경으로 삼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즉, 저출산으로 형제간의 사회화 기회가 줄어들고 지식 위주의 교육 풍토의 확산으로 또래간의 관계형성의 기회가 줄어든 현대 우리나라의 사회 구조에서 유아기에 적합한 사회화 과정 경험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한 자녀의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학자들은 외동이가 비정상적이고, 바람직하지 못한 인성과 사회적 행동을 갖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들은 형제가 개인의 발달을 위해 결정적인 학습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외동이의 경우, 형제의 부재라는 것이 발달상의 많은 결함을 유도한다고 주장해 왔다. Hall(1981)은 외동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병이 될 수 있을만큼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Garder, Hawkes와 Burchinal(1996)은 외동이는 형제가 있는 가정에서 자라난 아동과 동일한 적응 능력을 가지기는 어렵다고 지적하였다(최송미, 2002에서 재인용). 또한 Baskett과 Johnson(1982), 김재은(1984), 민영순(1984), 유영주(1986)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외동이는 발달 심리학적으로 형제아보다 더 자기중심적이고, 덜 협동적이며,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특히, 외동이에 대한 편견이나 부정적인 인식의 기저에는 외동이의 사회성이 문제시 되고 있다. 외동이는 자신만이 특별하거나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줄 형제자매가 없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미숙하여 외롭고 제멋대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여긴다(도미향, 2005). 송나리(1992)의 연구에 의하면 형제관계는 아동에게 결정적인 학습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에 형제의 부재로 인한 불이익을 경험하게 된다고 보았다. 또한 외동이 학부모의 양육태도에 있어 외동이 어머니들은 애정이 분산되지 않고 집중되어서 지나친 애정과 과보호를 한다고 하였다. 이로 인해 외동들은 능동적으로 생활하고 역할 경험을 학습할 기회가 박탈되어 의존적이고 인내심이 부족하고 이기적이고 무절제하고 퇴행적인 성격을 형성하는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이상로, 1995). 김재은(1984)도 외동이의 어머니는 아이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여 항상 자신의 곁에 두고 싶어 한다고 하면서 외동들은 어머니로부터 과도한 애정을 받으며 쓸모없는 간섭도 많이 받게 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연구결과들에 비해 긍정적인 결과들이 나와 있는 선행 연구들도 있다. 미국의 외동이 연구 학자 Newman(2001)은 외동아이는 호기심이 강하고 질문이 많으며 훌륭한 일을 해내려는 내적 요구가 강하고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독점하며 자라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또래들의 유아 언어가 아니라 어른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 지적, 언어적 능력 발달 면에서도 외동아이가 유리하다고 하였다(김경숙, 2004에서 재인용). 변은수(1990)도 외동이는 형제아보다 오히려 형제의 부재로 인하여 그들의 부모와 보다 더 긍정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런 긍정적인 관계는 부모의 유아에 대한 기대를 더 크게 하여 마침내 유아의 성취동기를 자극하여 긍정적인 자아상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외동이에 관한 연구에서도 일관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외동이와 형제아의 사회정서 발달은 서로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김숙경, 1988; 김정아, 1990; 박현주, 1992; 송나리, 1992)가

있는 반면 외동아보다 형제아의 사회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도 있다(김병태, 1997; 정유자, 1999). 한편, 김정아(1990)는 외동아와 형제아의 사회적 능력을 비교한 결과, 이들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고, 외동아와 형제아의 사회정서발달을 연구한 도미과 윤지영(2004)의 연구결과에서도 형제아와 외동아 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류향자(1999)의 연구결과에서는 외동아가 형제아보다 사회성과 정서적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나타났다. 실제 조사에 따르면 외동아는 외톨이가 될 확률이 여러 자녀의 가정보다 훨씬 많아 외톨이 중에서 17.4%가 외동아인 반면 친구가 많은 학생 중 외동아인 경우는 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사회정신건강연구소, 2002). 이는 외동아가 외톨이가 될 확률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다는 것을 예시한다.

외동아의 사회성과 관련된 연구들은 외동아를 지도하는 현장에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유아들을 지도하는 교사의 혼란을 가중시키기도 한다. 또한 외동아 뿐만 아니라 출생 순위, 성별, 부모의 특성, 외동아를 갖게 된 동기, 어머니의 직업 유무 등에 따른 유아들의 특성들에 대한 다양한 결과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외동아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외동아 학부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와 학부모의 담론을 통하여 교사들이 외동아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교사들의 현장 속 이야기를 통해 나타난 외동아의 특징과 그들의 학부모의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외동아를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교사들의 생각은 어떠한지를 알아보고 외동아의 양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생각과 기대는 어떠한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외동아를 지도하는데 있어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본 연구의 결과는 외동아의 지도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1) 외동이에 대해 교사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 2) 외동이의 학부모에 대해 교사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 3) 외동이를 효과적으로 지도하는 방법에 대한 교사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 4) 외동이의 양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생각과 기대는 어떠한가?

3. 연구자

1) 학창 시절의 나

연구자가 가지고 있던 ‘외동이’에 대한 인식은 내가 학창 시절 경험했던 몇 몇 친구들과의 관계에 기인한다. 내가 학창 시절을 보내던 시절 우리 주변에는 외동이 많지 않았다. 대부분의 자녀가 형제, 자매로 구성된 핵가족이 보편화된 가족 구성원이었고 세 자녀 가정, 많게는 넷이나 다섯 자녀로 구성된 가족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형제가 있는 것이 당연시 되었던 시대에 ‘무녀독남’, ‘무남독녀’ 외동이는 흔히 볼 수 있는 형제구조는 아니었다.

해마다 가족 구성원, 부모의 직업, 사는 곳 등을 조사해오는 과제가 있는 학창시절을 보낸 나로서는 자연스럽게 친구의 형제 관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내가 학창 시절 경험했던 외동이 친구들, 그 중 나의 중학교 1학년 학창 시절 유난히 얼굴이 하얗고 키도 컸으며 항상 주목 받기를 원하는 친구가 있었다. 또래에 비해 좋은 옷과 신발 등을 가지고 다녔으며 가족들과의 잦은 여행과 풍부한 문화생활을 경험하는 친구였다. 그 친구는 때로는 자기중심적이었고 때로는 부모님의 도움을 원했으며 때로는 친구들을 그리워하여 항상 친구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곤 했다. 또래보다 상대적으로 풍부한 문화적, 경제적 환경에 놓여 있으면서도 항상 친구들과의 놀이를 갈망하던 그 친구는 무녀독남 외동딸이었다. 그 후 학창 시절 동안 내가 만났던 주변의 외동이 친구들은 내가 중 1때 형성된 ‘외동이’ 만의 특징과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외동이에 대한 나의 생각에 영향을 주었다.

2) 유치원 현장에서의 나 - 외동이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 나

유치원 교사 경력 7년차에 접어들고 있는 나는 얼마 전 끝난 학부모 상담 일지를 정리하면서 학부모들의 요구사항과 유아들의 특징을 다시 검토하던 중 신기한 점을 발견하였다. 외동이를 자녀로 둔 학부모들은 유아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대단한 반면 형제아 학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외동이 학부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느낌을 받았다.

옆 반 교사와 함께 올해의 학부모와 유아에 대한 특징을 이야기 나누던 중 외동이를 자녀로 둔 학부모는 상담시간이 형제아 학부모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었으며 유치원에 대한 요구사항도 많았고 자신의 자녀를 매우 특별한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공통점으로 발견할 수 있었다. 그래서인지 우리 반은 학부모들의 요구가 옆 반에 비해 월등히 많았고 자신의 자녀에 대한 걱정을 안고 있는 모습도 많이 나타났다. 그 후 우리 반 원서를 자세히 살펴본 결과 옆 반에 비해 외동이가 10명이나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나는 자연스럽게 외동이들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학창 시절의 내가 경험했던 외동이 친구를 떠올리게 되었다.

아파트 지역에 둘러싸여 상대적으로 조용하고 깨끗한 환경을 자랑하는 서울 B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근무하던 중 나는 한 일화를 경험하게 되면서 외동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학기 초 어느 날 아침, 유아들의 등원을 맞이하면서 유아들과 인사를 나누고 유아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등 어느 때와 다름없는 아침을 보내고 있다. 그러던 중 ○○엄마가 오셔서 나에게 ○○에 대해 물으신다. “○○ 유치원에서 잘하나요?” 2월생으로 같은 만 5세 또래들 중에서도 생일이 빠른 편에 드는 ○○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도 잘하고 인사도 잘하는 등 나는 특별한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에서 학부모의 태도는 무언가를 걱정하는 듯한 모습이다. “잘하고 있어요. 친구들과도 잘 지내고 있고요.” 이렇게 답을 해준 후에도 ○○의 어머니는 한 시간 가량을 교실 참문 틈으로 ○○의 행동을 불안하신 듯 살펴보다가 돌아가신다. 학기 초라서 새로운 환경, 게다가 초등학교와 붙어있는 환경이어서 더욱 불안하신가보다 여기며 나는 더욱 신경을 써서 지도를 하기로 마음을 먹는다. 그러나 학부모의 이런 모습은 학기 초뿐만 아니라 4월, 5월이 되어도 변함이 없다. 하루는 교무실에서 한 교사가 ‘○○ 엄마는 왜 매일 복도에서 살다시피 해요?’라고 하자 다른 한 교사가 ○○를 가리키며 “○○ 무남독녀 외동딸이에요.”라고 말을 한다. 교무실에 계신 선생님들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아...’하며 공감을 한다. 나는 ○○의 개인조사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다 ‘외동딸이구나’하며 중얼거린다.

위 일화에서 여러 선생님과 본 연구자는 ‘외동’이라는 단어를 단순히 형제가 없이 하나의 자녀만 있는 한 자녀 가정에서 성장하고 있는 아이 이외의 우리만이 아는 다른 뜻으로 해석하고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동료교사들과의 대화를 통해 ‘외동’이라는 우리만의 해석이 현장에 있는 교사들에게도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본 연구자는 논리적으로 정의내릴 수는 없지만 외동에게는 그들만의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자는 교사들은 외동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외동을 자녀로 둔 학부모에 대한 교사들의 생각은 어떠한지를 계획하고 외동을 효과적으로 지도하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계획하고 실행해 보고자 하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외동 학부모 본인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면서 자신의 자녀에 대한 교육적 기대는 무엇인지 알고 싶어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Ⅱ. 이론적 배경

1. 외동이의 특성

외동이(only child)라 함은 형제가 없이 자녀가 한 명 있는 한 자녀 가정에서 성장하고 있는 아동을 말하며, 외동이 혹은 외동아라고도 한다. 즉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형제, 자매가 없다는 것이고 이런 형제의 부재로 인해서도 협동하고 상호 이해하는 학습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선입견을 낳게 한다. 보통 외동이가 된다는 것은 단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외동이는 부모의 관심을 독차지하게 되어 너무 지나치게 과보호 받을 우려가 있고, 부모의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정서적인 불안이 클 수 있으며, 형제가 없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학습 경험, 특히 사회성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이런 생각에서 외동이들이 자라서 이기적이고, 잘 적응하지 못하고, 문제가 많은 어른으로 자라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게 된다.

우리 사회에는 외동이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존재하고 있으며 외동이의 특징에 대해 성취수준, 지적발달, 사회성발달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외동이의 성취수준에 관한 연구결과들은 외동이와 소가족 아동, 특히 맏이인 경우에 보다 긍정적인 발달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Blake, 1981; Falbo, 1981; Ching, 1982). 부모의 높은 기대 수준은 아동의 성취동기의 발달을 촉진시킨다. 맏이나 외동이의 부모는 자녀에 대한 양육경험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아동에게 훨씬 더 많은 기대를 할 것으로 추측된다(Falbo, 1981). 따라서, 부모의 높은 기대수준이 수행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성취를 보상하며 자극하기 때문에 성취에 있어, 이러한 부모들의 높은 관심이 외동이에게는 보다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성취 수준에 있어서 외동이의 우수함은 연령이 중재변인으로 작용하여 나이가 동일수록 더욱 두드러지는데(Falbo & Polit, 1986), 이는 자녀가 한 명일 경우에 연령의 증가에 따라 가족의 재정적, 정서적 자원으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높은 교육과 성취를 이끌어 내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둘째, 외동이의 지적발달에 관한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지적발달과 관련된 외동이에 대한 연구들은 일관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Belmont와 Marolla(1973)는 딸이와 소가족 자녀의 경우보다 외동이의 지능이 더 낮았다고 하였다(송나리, 1992에서 재인용). Zajonc와 Markus(1975) 또한, 외동이가 다른 순위의 아동보다 낮은 IQ를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김미숙, 2006에서 재인용). Zajonc(1975)는 외동이는 동생을 가르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형제아에 비해 지능이 떨어지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반면, 중국아동을 대상으로 한 Ching(1982)의 연구에 의하면 3~15세 아동들 가운데 외동이가 같은 연령의 형제아들보다 상상력, 언어능력, 모방력, 생산적 사고 등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내 외동이의 지적능력이 우수하다고 하였다. Falbo와 Polit(1986)는 광범위한 외동이 연구들을 종합하여 양적분석을 시도하였는데, 지능에 관련된 연구결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 외동이는 모든 다른 비교집단에 비해 지능에서 보다 긍정적인 발달을 보였으며, 특히 두 자녀 가족보다는 대가족이나 중간 크기의 가족에 대해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졌다고 분석하였다.

셋째, 외동이의 사회적 발달에 관한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이와 관련된 연구들은 문화권에 따라 상반된 연구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외동이는 응석받이, 자기중심적, 부적응적, 이기적, 미성숙, 완벽주의적, 적의적이고 엄격한 것을 포함해 바람직하지 않은 수 많은 성격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Day, 1991; Feiring & Lewis, 1984; Gee, 1992; Nyman, 1995). 중국에서는 외동이의 경우가 사회성에 있어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보고하였으나(Ching, 1982; Jiao, Ji, Jing, 1986) 미국의 연구결과들은 외동이와 형제아 간의 사회적 발달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Falbo & Polit, 1986; Blake, 1981; Richardson, Bhattacharya, 1991). . Jiao와 Ji(1986)는 취학 전과 취학 직후의 아동을 대상으로 협동성, 동료에 대한 신뢰, 자기중심성에 대한 평가를 동료평가에 의해서 실시한 결과 외동이가 덜 협동적이고 동료의 신뢰도 적게 받았으며, 더 자기중심적이라는 연구결과를 얻었다. 또한 Wan, Fan, Lin과 Jing(1994)도 외동이들은 형제아들에 비해 자기중심적이고 비협조적이며 덜 사교적이고 부적응적이라고 하였다(배매리 · 이규미, 2006에서 재인용).

이러한 외동이의 사회적 발달 특성에 대해 부정적인 측면을 언급한 연구와는 상반된 견해를 나타내는 연구들 중에서 Falbo와 Polit(1987)은 외동이와 관련된 141개의 문헌 고찰을 통해, 외동이는 형제아들보다도 더욱 지적이고 사교적이며 학교에서 문제 행동을 덜 보였음을 언급하면서 외동이의 긍정적 측면을 보고하였다. 즉 외동이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은 과학적 증거가 없음을 강조하였다. 김제한(1986)은 한자녀와 다자녀의 비교연구에서 외동이의 경우 활동성, 지배성, 사려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적으로 다자녀 아동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 외동이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은 편견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외동이의 사회적 발달에 대한 우리 나라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이성진, 이기우(1986)의 조사에서 외동이의 일반적 특

성 중에서 지적 특성과 사회적 특성이 더 우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김정아(1990)는 학령 전 외동아와 형제아의 사회적 능력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으며, 박범실(1986)의 연구에서는 비협조성 요인에서만 외동이 더 높았다(김미숙, 2006 재인용). 최근의 연구 결과들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박영인(2003)은 여자 외동아의 경우 형제아에 비해 자율성의 특성치가 높게 나타났고, 이동춘(2004)은 주관식으로 설문한 교사들의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 외동아들이 대체적으로 사회성이 좋고 리더쉽이 있다고 하였으며, 김미선(2004) 역시 외동아와 형제아의 사회성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외동아와 형제아 간의 사회성 발달에는 별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외동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

외동아와 관련된 선행 연구는 외동아의 사회적 능력 및 인지 능력 발달에 관한 연구가 있으며, 그와 관련하여 외동아와 다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태도, 외동아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외동아와 관련된 논문으로는 외동아와 형제아의 사회적 능력, 인지 능력, 자기 효능감,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의 차이, 학부모의 양육태도 등에 대한 내용이 있다.

외동아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특성으로 주로 많이 설명되고 있으나 실제 많은 연구들에서 일치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우선 외동아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로 형제의 부재로 인한 결핍 메커니즘을 들고 있다. 가족치료이론가들은 형제가 없기 때문에 의사소통 기술, 자율성, 정체감 형성의 결핍 등 부정적인 특성을 주로 갖게 되었다고

예견하였는데 Baskett과 Johnson(1982)에 의하면 아동은 부모와의 상호작용에서는 사회적 접근과 바람직한 행동을 통해 타인으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얻는 것을 배우게 되고, 반면에 형제와의 상호작용에서는 부정적 강화와 처벌을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행동을 통제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고 하였다. 이렇듯 외동이는 형제아에 비해 자기 중심성이 강하고 협조적이지 못하며 사회성도 약하다는 것이다.

외동이에 대한 부정적 견해의 이유를 부모의 양육태도에서 찾은 경우도 있다. 이상로(1995)는 외동이 부모의 양육태도가 익애적이고 과보호적이기 때문에 그들은 능동적으로 생활하지 못하고 인내심이 부족한 퇴행적인 성격을 형성하게 되고, 외동아 부모의 경우 지나친 애정과 과보호로 유아 스스로의 능동적인 역할을 학습할 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에 아동에게 의존성이나 이기심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김덕희(2005)의 외동이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관한 연구에서 외동이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일수록 유아의 비협조성이 낮은 경향이 있고 양육태도가 자율적일수록 유아의 사회적 활동성이 높은 경향이 있다고 보고했다.

반대로 외동이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를 가진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성진과 이기우(1986)의 연구에서는 외동이가 알고자 하는 호기심과 질문이 많았으며, 사교적이고 타인과 잘 어울리며 어떤 일을 참고 해내며 훌륭한 일을 이룩하고자 하는 내적 요구가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양동두(1993)의 연구에서 외동이의 성격은 활동성, 지배성, 안전성, 사려성, 사회성 등 성격요인 모든 분야가 정상적인 범주에 들어 있으며, 외동이가 형제아에 비해 사회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희(1990)의 연구에서는 외동이가 형제가 있는 유아보다 알고자 하는 호기심이 더 많고 사교적이며 타인과 잘 어울리고

참여성 있게 일을 해내며 훌륭한 일을 이룩하고자 하는 내적 요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주(2000)도 형제아보다 외동이가 낯선 환경에 더 잘 적응하며, 집단생활이나 새로운 친구와도 더 잘 어울려 지내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긍정적인 견해의 연구자들은 외동이의 인성 특성을 애정이 짙고 정직하며 관대하다고 하였고 지적측면에서도 우수하다는 결과들을 나타냈다.

3. 선행 연구

외동이에 관한 교사의 인식을 알아본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교사는 외동이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존재한다고 하였으나, 실제 많은 연구들에서 일치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외동이의 성격 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성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염려와는 달리 형제아와 비교하여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김숙경, 1988; 박현주, 1992; 송나리, 1992)와 오히려 형제아들보다 더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들도 있다(김병태, 1997; 정유자, 1999). 김정아(1990)는 외동이와 형제아의 사회적 능력을 비교한 결과, 이들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고, 외동이와 형제아의 사회정서 발달을 연구한 도미향과 윤지영(2004)의 연구결과에서도 형제아와 외동이 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소희 외(2005)는 외동이를 자녀로 둔 부모는 형제아와는 달리 외동이의 행동을 엄격하게 규제하거나 모든 주위 환경으로부터 과보호를 하기 쉬운데, 이러한 영향으로 자녀는 책임감이 없으며 자기 본위이고 의존적이며 사회성이 결핍될 수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양육태도와 사회적 능력을 연구한 대부분의 연구들에서는 자녀에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합리적으로 지도하

며 적절한 애정과 제한을 해 줄수록 아동의 사회적 능력이 높은 반면, 적대적이고 일관성이 없으며 지나치게 통제적인 어머니의 자녀는 낮은 사회적 능력을 나타낸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김정아, 1990; Barnett, 1981; Pettit, Dodge & Brown 1988).

외동이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치원에서의 유아의 사회적 적응행동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어머니의 합리적, 애정적인 양육방식은 자녀의 친사회적인 행동, 성취동기, 인기도 및 사회성 등과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덕희, 2005). 이은영(2004)은 외동이 어머니가 애정적 양육행동을 많이 나타낼 경우 아동의 지도력이 높았고, 권위주의적 통제 양육행동은 불안정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졌다고 보고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를 위하여 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10명과 외동이 학부모 10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 교사들은 모두 외동이를 지도해본 경험이 있으며, 현재도 외동이를 지도하고 있다.

1) 연구 참여자의 선정과정

본 연구는 질적 연구로서 연구 참여자들의 담론 분석을 주된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질적 연구의 경우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에게 얼마나 가깝게 다가갔느냐 하는 정도가 연구를 성공적으로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김영천, 2006) 이미 연구자와 어느 정도 래포 형성을 이루고 있는 교사들을 선정하게 되었다. 또한 Spradley(1979)가 언급한 좋은 제보자란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이나 문화에 대해서 잘 아는 자이고,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에 깊이 참여하고 있는 자로서, 외부인의 시각으로 자신의 문화를 분석하지 않는 자여야 한다는 조건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10명과 외동이를 자녀로 둔 학부모 10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 교사들은 모두 외동이를 지도해본 경험이 있는 교사들이다. 본 연구의 문제는 교사들의 담론 분석이 주를 이루므로 본 연구자와 래포(rapport)를 형성하고 있는 동료교사 5인과 본 연구자의 대학동기 3명과 유치원 현장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교사 2명을 선정하

였다. 외동이 학부모는 사전에 설문지를 배부하여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여 동의한 10명을 선정하였다.

2) 연구 참여 교사의 배경

문화기술적 연구의 윤리적 원칙 중 정보제공자들은 익명으로 남아있을 권리가 있다(Spradley, 1979)는 점을 고려하여 연구 참여자의 본명 대신 가명을 사용하였다. 다음은 연구 참여자의 연령과 학력, 경력, 외동이의 지도 경험 등을 조사하여 배경을 서술하였다.

(1) 명 교사

명 교사는 4년제 유아교육과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서울시 소재의 B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부장교사로 재직 중이다. 13년의 교육경력을 지니고 있으며 현재 세 명의 유아를 자녀로 둔 다둥이 가정을 구성하고 있다. 특유의 온화한 성품과 친화력으로 원장선생님과 원감선생님, 지역 장학사 분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항상 밝고 긍정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후배 교사의 좋은 멘토 역할을 해주는 교사이다. 경청하는 자세가 몸에 배어 있으며 상대방의 입장을 널리 헤아리며 따뜻한 격려와 충고 또한 해주는 부드럽고 온화한 카리스마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다둥이 엄마로서 유아들의 성별, 형제관계, 기질 등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으며 다둥이 출산을 적극 장려하며 본 연구에 많은 정보를 제공하였다.

(2) 한 교사

한 교사는 4년제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현재 서울시 소재의 B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기간제 교사로 재직 중이다. 6년의 교육경력 동안 유아들에게 다양한 종류의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영상 촬영, 디지털 기기 촬영, 각종 문서 편집 등 정보화 능력이 뛰어나다. 멀티미디어 관련 업무를 특히 좋아하며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각종 정보화 기기 관련 연수를 받고 있는 등 끊임없이 자기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교사이다. 항상 웃는 얼굴로 학부모와 유아, 교사들을 대하며 외동이의 기본생활습관에 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사이다.

(3) 이 교사

이 교사는 2년제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현재 학사 편입하여 4년제 학위를 받으려고 준비 중이며 공립유치원 에듀케어 교사로 재직 중이다. 사립유치원에서 담임 교사 경력이 3년 있으며 공립 유치원 강사로는 8년의 경력이 있다. 대학생과 고등학생 자녀를 둔 두 아이의 엄마로서 외동이로 자녀를 키우기 보다는 외동이에게는 형제, 자매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본 연구에 적극 협조하였다.

(4) 홍 교사

홍 교사는 현재 공립유치원 에듀케어 교사로 4년제 유아교육과를 졸업하였으며, 남다른 유머감각을 소유하고 있다. 유아재즈댄스 지도자 자격증과 종이접기 자격증, 손글씨 쓰기 자격증 등 다양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유치원 행사, 수업활동 등에 자신의 장기를 적극적으로 발휘하며 즐거운 유치원 생활을 주도하는 교사이다. 외동이를 자녀로 둔 부모와 등·하원 시 수시로 개별상담을 하고 있으며 본 연구자의 연구문제를 매우 흥미롭게 여기며 다양한 답변을 해주었다.

(5) 원 교사

원 교사는 4년제 유아교육과를 졸업함과 동시에 임용고시에 합격하여 현재 서울시 소재의 B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교사로 재직 중이며 6년차 교사이다. 원 교사는 책임감이 강하고 공문처리 능력이 뛰어나며 유아교육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지니고 있다. 수업개선 교사로서 유아들과 함께 전래동화를 통한 언어능력 신장이라는 주제 하에 수업을 진행한 바 있으며 대학원 진학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원 교사는 만 3세 남자 유아와 갓 돌 지난 여자 유아를 자녀로 두었으며 작년에 외동이 학부모에서 벗어나 형제아 학부모가 되었다. 본 연구자와 외동이에 대해 많은 담론을 나누었으며 이 연구의 주요한 정보제공자이다.

(6) 전 교사

전 교사는 4년제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임용고시에 합격하여 전라도 M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는 경력 5년차 교사이다. 매사에 차분하고 성실한 근무수행능력으로 인해 원장선생님과 원감선생님, 지역 장학사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는 교사이다. 전라도 지역의 지역적 특성 상 외동이의 교육에 관심이 많으며 특히 다문화 가정 내의 외동이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현하였다.

(7) 인 교사

인 교사는 4년제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임용고시에 합격하여 현재 인천의 S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는 5년차 교사이다. 특수유아에 대한 관심이 남달라 현재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학문적 열정

을 지닌 교사이다. 현재 아파트 단지로 둘러 쌓인 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만 4세 담임을 맡고 있는 인교사의 학급에는 외동이가 과반 수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본 연구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주었다.

(8) 박 교사

박 교사는 4년제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유치원 5년의 경력과 어린이집 1년의 경력을 가졌으며 현재 대학원에 다니며 유아교육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있는 교사이다. 박 교사는 차분한 말투와 유아들과의 긴밀한 상호작용으로 학부모와 유아들에게 인기가 많은 교사이다. 박 교사는 유치원 근무 첫해의 외동이 학부모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오고 있는 교사이기도 하다. 박 교사는 외동이와 그의 학부모에 대한 생각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며 본 연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9) 최 교사

최 교사는 2년제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현재 학사 편입하여 4년제 학위를 받으려고 준비 중이며 서울시내 E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에듀케어 교사로 재직중이다. 유치원 경력은 총 5년으로 최 교사 본인이 외동으로 자라나서 무엇보다 외동이의 입장에서 본인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들려준 교사이기도하다. 교사의 입장에서 외동이를 바라본 시선과 본인이 외동으로 자라면서 경험한 본인의 부모님 이야기, 교우관계 등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주며 본 연구에 깊은 관심을 가진 주요한 정보제공자이다.

(10) 윤 교사

윤 교사는 4년제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현재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이며 발달하고 통통튀는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현재 사립유치원 5년차 교사이다. 해마다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에는 외동이가 많이 있다고 하며 적극적으로 본인이 지도한 외동이들의 특징을 이야기해 주었다. 외동이 중에서도 외동이 남자 유아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며 외동이 학부모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본 연구자와 함께 외동이에 관한 행동특성, 학부모들의 특성 등을 이야기하며 본 연구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준 제보자이다.

각 연구 참여 교사의 배경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의 배경

교사	연령	학력	경력
명 교사	37	4년제 졸	13 년
한 교사	32	4년제 졸	6 년
이 교사	45	2년제 졸	11 년
홍 교사	32	4년제 졸	9 년
원 교사	31	4년제 졸	6 년
전 교사	30	4년제 졸	5 년
인 교사	30	4년제 졸	5 년
박 교사	32	4년제 졸	6 년
최 교사	30	2년제 졸	5 년
윤 교사	28	4년제 졸	4 년

3) 연구 참여 학부모의 배경

문화기술적 연구의 윤리적 원칙 중 정보제공자들은 익명으로 남아있을 권리가 있다(Spradley, 1979)는 점을 고려하여 연구 참여자의 본명 대신 가명을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인적사항 및 외동이 교육에 대한 내용은 개별면담을 통해 얻을 수 있었다.

(1) 학부모 A

만 5세 외동아들을 자녀로 둔 학부모로서 회사를 다니면서 현재 맞벌이를 하고 있다. 둘째 계획이 있었으나 자녀의 막달에 일을 그만두면서 육아에 전념하다 같은 회사 후임자가 퇴직을 하여 재취업을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으며 둘째 갖는 시기를 지나쳐 버리게 되었다고 이야기 하였다. 아이에게는 나중에 부모보다는 형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며 적극적으로 면담에 참여해주었다.

(2) 학부모 B

여행사에 근무하고 있으며 특유의 상냥하고 친절한 말투로 교사, 또래 학부모와도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학부모이다. 만 5세 외동딸을 자녀로 두고 있으며 10년 만에 가진 외동딸이어서 자녀 교육에 관심도 많고 궁금한 점도 많으며 많은 이야기를 들려준 학부모이기도 하다. 어렵게 가져서 낳은 아이만큼 자녀가 건강한게 가장 감사하면서도 초등학교 가기 전인 지금 시기에 사교육에도 관심이 많다고 이야기하며 외동자녀에 대한 교육적 기대에 적극 답변을 해주었다.

(3) 학부모 C

만 5세 외동아들을 자녀로 두었으며 결혼 6년 만에 자녀를 임신하였고 출산을 하며 체력과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아 둘째를 낳지 못한 경우의 학부모이다. 한 명을 키우더라도 제대로 키우고 싶다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다른 부분보다 자녀의 인성적 부분, 사회성에 큰 관심을 표현하였다. 남자유아여서 인지적인 부분보다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며 자녀에 대한 교육적 기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었다.

(4) 학부모 D

만 5세 외동아들을 자녀로 두었으며 현재 대기업 연구원으로 근무 중인 학부모이다. 뒤늦게 결혼을 하여 자녀를 출산하였고 남편을 따라 자녀가 6개월 때 외국에 나가 외국에서 자녀가 6세까지 생활하다 중간에 한국에 들어온 경우이다. 어머니는 외국에서 대학원 학위를 이수하였으며 직장모라 상대적으로 육아 정보에 미약하여 외동이를 기르는데 특별한 지식이 없다고 이야기하며 본 연구에 큰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답변을 해주었다.

(5) 학부모 E

현재 금융기관에 근무하며 승진시험으로 인해 퇴근과 주말을 인근 도서관에서 생활하고 있는 일에 대한 열정이 많은 학부모이다. 항상 업무량이 많아 자녀에게 미안하다고 하며 해줄 수 있는 만큼 많은 걸 해주고 싶다고 하며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만 5세 외동딸을 자녀로 두었으며 본인의 기대만큼 자녀가 따라와 주지 않아서 속상하다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현재는 자녀가 잘하고 싶은 것을 뒷받침 해주고 싶으며 둘째도 더 늦기 전에 낳고 싶다고 이야기하며 본 연구에 다양한 질문과 답변을 하며 큰 관심을 표현하

였다.

(6) 학부모 F

만 5세 외동아들을 자녀로 두었으며 현재는 일을 쉬고 있으며 자녀와 다양한 체험학습을 다니며 즐겁게 생활하고 있는 학부모이다. 자녀에 대한 사랑 표현을 자주 하는 편이며 사랑을 겉으로 표현하는 만큼 엄격하게 대해주기도 한다며 본인의 명확한 교육철학을 갖고 있는 학부모이기도 하다. 외동이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에 대해 적극적으로 답변해주었고 외동이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고 이야기하며 본 연구에 큰 흥미를 보인 학부모이다.

(7) 학부모 G

조용하고 차분하며 소녀같은 외모와 풍부한 감성을 갖고 있는 학부모로서 만 5세 외동딸을 자녀로 두고 있으며 현재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본인의 자녀가 내성적이라 학기 초에는 기관에 적응을 잘 못하는 것 같다며 걱정이 많았고 외동딸의 특징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준 학부모이다. 외동이에게는 친구와 어울리는 기회를 많이 마련해주어야 한다며 외동이의 사회성에 큰 관심을 보이며 본 연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8) 학부모 H

만 5세 외동딸을 자녀로 두었으며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으며 외동이의 교육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학부모이다. 외동이를 낳으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모가 되었고 육아에 대한 정신적·육체적으로 힘든 시기를 거쳐 둘째를 낳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있는 학부모이기도 하다.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결혼수업, 부모수업을 사회에서 해주어

야 하며 자녀를 기르는데 있어서 현실과 이상은 너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였으며 본 연구에 다양한 답변을 해주었다.

(9) 학부모 I

영화와 광고 관련 일을 하고 있으며 자유로운 사고와 틀에 얽매이지 않은 교육관을 갖고 있는 학부모이다. 만 5세 외동딸을 자녀로 두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여자가 일을 하면서 아이를 낳으면 경력 단절, 재취업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아 힘들다며 저 출산에 대한 사회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며 본 연구에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주었다.

(10) 학부모 J

만 5세 외동아들을 자녀로 두고 있으며 현재 사립 유치원 교사로 재직 중인 학부모이다. 외동이에 대한 이야기를 교사의 입장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들려주며 외동이들의 특징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었다. 외동이에 대한 교육적 기대에 대해서 다양한 답변을 들려주었고 외동이 학부모들만의 인적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답변을 들려주며 본 연구에 대해 많은 담론을 나누었다.

각 연구 참여 학부모의 배경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연구에 참여한 학부모들의 배경

학부모	연령	학력	자녀 연령	외동이 성별	직업유무
학부모 A	38	대졸	만 5세	남	유
학부모 B	45	대졸	만 5세	여	유
학부모 C	41	고졸	만 5세	남	유
학부모 D	40	대학원졸	만 5세	남	유
학부모 E	34	고졸	만 5세	여	유
학부모 F	38	대졸	만 5세	남	무
학부모 G	37	대졸	만 5세	여	유
학부모 H	37	대졸	만 5세	여	유
학부모 I	41	대졸	만 5세	여	유
학부모 J	35	대졸	만 5세	남	유

2. 연구절차

1) 예비연구

예비연구를 위해 2010년 10월 8일 교사 3인과 1회의 집단면담을 가졌다. 집단면담에 참여한 교사들은 외동아들이 형제아에 비해 이기적이고 자기 위주이며 또래보다는 교사나 어른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선호하며 의존적이라는 의견을 주로 제시하였다. 교사들이 생각하는 외동아 학부모들은 형제아 학부모들에 비해 유아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고 예민한 편이며 첫째 유아를 기르는 학부모와 비슷한 성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예비연구를 통해 확인된 교사들의 의견은 연구자가 연구하고자 했던 내용과 일치하는 결과로서 본 연구로 확장시켜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2) 본 연구

본 연구를 위하여 2010년 10월 16일부터 2011년 3월 12일까지 약 5개월 동안 집단면담과 개별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자료가 포화될 때 까지 면담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인 심층면담(In-depth interview)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연구주체의 변인이 깊이 묻혀 있거나 다양한 변인들을 통제하기 힘든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적합한 방법이다(Merriam, 1994). 또한 본 연구에서는 반구조화된 면담방법을 사용하였다. 반구조화된 면담이란 피면담자들이 포괄적인 주제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지를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면담방법으로 기대하지 않았던 대화나 질문이 나타나 이러한 내용들이 의미있는 자료들로서 이용될 수 있다(김영천, 2006).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외동이와 그 학부모에 대하여 무슨 생각과 어떤 경험을 하였는지에 대해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였다. 교사와의 면담을 진행하기 전에 교사와 만나서 연구에 대해서 설명하고 레포 형성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후에 진행된 집단면담 및 개별면담은 교사들의 상황에 따라 유치원 빈 교실이나 교사실, 외부공간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교사와 학부모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이끌어내기 위해 답소를 나누듯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다과를 준비하였고, 연구자는 대화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되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가 사담(私談)으로 흐르지 않도록 통제하였다.

(1) 핵심주제면담(focus group interview)

본 연구는 집단면담 방법 중에서 핵심주제면담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집단면담은 대화를 자극시키고 한 사람의 주장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이 반박하는 등 개인면담에 비하여 포괄적이고 다양한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핵심주제 면담은 소집단을 구성하여 특정 연구주제에 대하여 그 집단의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김영천, 2006) 본 연구의 연구방법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연구자는 조정자(moderator)의 역할을 하며 면담을 진행하였고 필요한 경우 개방적인 질문을 사용하여 집단토론을 자극시키고 촉진시켰다. 개방적인 질문의 내용은 교사들은 외동이와 그 학부모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외동이를 효과적으로 지도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한 교사들의 주된 경험과 관련된 것이다.

집단면담은 소그룹으로 나누어 최소 1회에서 3회의 집단면담을 실시하였다. 집단면담의 소요 시간은 각 집단면담마다 다르며 1회에 대략 1시간 정도 소요되었으며 총 시간은 11시간 26분이다. 집단면담의 구체적 일정은 표 3과 같다.

<표 3> 교사면담 일정

회차	날짜	소요시간(시:분)	참여자
1	2010. 10. 16	01:12	이교사, 한교사, 홍교사
2	2010. 11. 20	01:28	박교사, 인교사, 전교사
3	2010. 12. 18	00:47	윤교사, 최교사
4	2011. 1. 25	00:55	명교사, 원교사
5	2011. 1. 31	01:39	박교사, 인교사, 홍교사
6	2011. 2. 18	01:04	이교사, 한교사
7	2011. 2. 25	01:06	윤교사, 전교사
8	2011. 3. 2	01:32	명교사, 원교사, 한교사
9	2011. 3. 5	00:35	박교사, 인교사
10	2011. 3. 12	01:08	윤교사, 이교사, 전교사
총시간		11:26	

(2) 개별면담

본 연구에서는 집단면담을 주요 면담 방법으로 하면서 보조적인 방법으로 개별면담을 실시하였다. 개별면담은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개발된 질문을 사용하여 교사 1인당 2~3회씩 이루어졌고, 각 면담은 20~30분 정도 소요되었다. 대부분의 교사들과는 각각 3회씩 면담을 하였으나 교사의 사정에 따라 2회 이상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2회의 면담이 이루어졌다. 교사들이나 학부모들의 면담 후 개인의 생각이나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직접 질문하는 면담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Lincoln & Guba, 1994) 전화와 e-mail을 통해서 외동이에 대한 교사나 부모들의 구체적인 생각을 물어보거나 집단면담에서 미흡한 내용들을 보충하였다.

학부모는 개인 사정에 따라 집단면담 시간을 조정하기가 어려워 개별면담을 실시하였다. 학부모와의 개별면담은 연구 참여자들의 스케줄을 고려하여 평일 오후 시간이나 토요일 오전 시간을 활용하였으며 1회에 대략 3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총 면담시간은 6시간 23분이다. 이 후 구체적인 사례나 논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와 e-mail, 유아의 등·하원 지도시 이야기를 통하여 추가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교사들과의 면담에서는 교사가 생각하는 외동이의 성격, 교사가 경험한 외동이의 특징, 교육 현장에서 외동이 지도시 구체적 사례, 교사가 생각하는 외동이 학부모의 특징, 외동이를 지도하는데 있어 어려움 및 효과적인 지도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주로 질문하였다. 학부모와의 면담에서는 학부모가 생각하는 본인 자녀의 특성, 유치원과 가정에서의 같은 점과 다른 점, 외동이를 갖게 된 계기, 외동이 자녀에 대한 학부모의 교육적 기대, 자녀 양육시 교육관 등이 주된 질문 내용이다. 면담한 모든 내용은 연구에 참여하는 교사들과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얻어 녹음하였으며, 면담을 마친 후에 전사(transcribe)하였고, 교사 이름, 학부모 이름, 유아의 이름은 모두 가명을 사용하였다. 외동이 자녀의 학부모 개별면담의 구체적 일정은 표 4와 같다.

<표 4> 학부모 개별면담 일정

회차	날짜	소요시간(시:분)	참여자
1	2010. 11. 6	00:32	황혜란
2	2010. 11. 13	00:35	유소영
3	2010. 11. 20	00:37	장혜영
4	2010. 12. 4	00:41	채송이
5	2010. 12. 4	00:43	한유란
6	2010. 12. 10	00:38	이민정
7	2010. 12. 11	00:39	백주하
8	2011. 1. 14	00:40	우선영
9	2011. 1. 15	00:42	정재연
10	2011. 2. 11	00:36	윤민서
총시간		06:23	

3. 자료분석

자료분석을 위하여 수집된 모든 자료들은 Bogdan과 Biklen(1992)이 제시한 방법에 따라 교사들과의 면담내용을 여러 차례 읽으며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주요한 주제별로 부호화(coding)하는 과정을 거쳤다. 자료수집은 총 10회의 교사 집단면담과 개별면담, 10회의 학부모 개별면담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모든 면담은 사전에 동의를 구해 녹음하도록 하였다. 또한 집단면담과 개별면담 시 연구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그 자리에서 메모하여 관찰자 의견(observer's comment)을 남기도록 하였다.

연구자는 자료의 정확한 분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면담 당일 녹음한 내용

을 전사하여 현장기록노트를 완성해 나갔다. 수집된 모든 자료는 분석을 위하여 연구문제에 따라 주제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거치고,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일차적 범주 목록인 ‘외동이에 대한 교사들의 생각’과 ‘외동이 학부모에 대한 교사들의 생각’, ‘외동이를 효과적으로 지도하는 방법’, ‘외동이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기대’로 분류하였다. 분류된 범주의 내용은 다시 반복적으로 읽는 작업을 통해 세부적인 하위목록으로 유목화 하였다. 또한 전사된 현장기록노트를 여러 번 읽고 정리함으로써 교사들의 공통된 부분을 유목화하거나 분류하고 면담내용 중 의미 있는 내용은 다음 면담 시 언급하여 의미있는 토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자료분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에게 면담내용의 일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구성원 검토(member check)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동료연구자에 의한 비평(peer debriefing)의 방법으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 동료와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유치원 교사인 외부자에게 자료분석 과정을 보여주고 점검을 받는 절차를 거쳐 객관적인 견해를 수용하고자 노력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본 연구에서는 교사와 학부모의 외동이에 대한 담론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집단면담과 개별면담을 통해 수집한 자료들과 관련문헌들을 검토하고 분석해 본 결과 외동이에 대한 교사들의 담론 내용은 크게 외동이에 대한 이야기와 외동이의 학부모에 대한 이야기, 외동이를 효과적으로 지도하는 방법으로 범주화하였다. 또한 외동이 학부모와의 개별면담을 통해 수집한 자료들과 관련문헌들을 검토하고 분석해본 결과 외동이의 양육과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생각과 기대를 알아볼 수 있었다.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외동이에 대한 교사들의 생각

교사들의 담론 속에서 나타나는 외동이에 대한 교사들의 생각을 분석한 결과 자기 중심적인 아이, 나눔이 부족한 아이, 부모에게 의존적인 아이, 교사의 관심을 받고 싶은 아이, 어른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아이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1) 자기 중심적인 아이

교사들은 외동이들은 다른 유아들에 비해 이기적이고 고집이 세며 욕심이 많다고 이야기 하였다. 인교사와 전교사는 특히 그룹활동을 할 때 외동이들이 이러한 특징을 많이 보인다고 이야기 하였고, 다른 교사들도 이에 공감

하고 있었다. 교사들의 이러한 생각은 다음의 면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 교사: 외동이들은 대체적으로 이기적이며 욕심이 많고 고집이 세요. 특히 여자 외동이들은 역할 영역에서 놀이할 때 보면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하고 그게 뜻대로 되지 않으면 빠지거나 말을 안하는 등 자기 중심적인 행동을 많이 보여요. (집단면담 2010. 11. 20)

전 교사: 여자아이들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남자아이들도 쌓기놀이나 바깥놀이를 가면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막화를 내거나 울거나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볼 수 있어요. 친구들을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으니깐 감정조절을 잘 못하고... (집단면담 2010. 11. 20)

명 교사: 일반적으로 외동이라는 타이틀을 떠나서 외동이들이 자기 중심성이 강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형제랑 나눠서 쓴다거나 투쟁할 일이 없으니깐 본인이 요구하면 모든 것이 수용되고 해결되고 그렇지 못한 경험이 많이 없으니깐 자연스럽게 자기 중심적이 될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모든 포커스가 자신에게 맞춰져 있으니깐 유치원에 와서도 자연스럽게 그런 모습이 표출되는 것 같기도 해요. (집단면담 2011. 1. 25)

최송미(2002)의 연구에 의하면 외동이는 항상 같이 생활하는 형제가 없어 경쟁 상대가 없고 성인들과 많이 접촉하게 되므로 조숙하고 영리해지는 반면에 어렸을 때 받았던 특별한 관심을 자라서까지 받으려 하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열등감이 더욱 조장되기 쉽다고 보았다. 교사들의 이야기 속에서 외동이는 자신의 뜻대로 활동을 하려는 성향이 강하며 항상 자신에게 관심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유치원에 와서도 자신이 중심이 되어

활동하길 원하는 것 같다고 교사들은 지각하고 있었다.

최 교사: 저는 꼭 외동들이라고 다 자기 중심적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활동하다 보면 형제가 많은 아이들이 다 리더쉽있지는 않잖아요. 우리반 아이 중에 리더쉽 있는 아이가 있는데 알고보니 외동이더라구요. 어느 정도 외동에 대해 선입견이 있는 것 같아요. (집단면담 2010. 12. 18)

홍 교사: 자기가 중심이 되는 환경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적인게 당연한 것 같아요. 가정에서는 더 그렇구요. 그런데 자기 중심적이라는게 유아기의 특성이잖아요. 어른이 그런 건 문제가 되겠지만 이걸 자연스럽게 사회생활, 단체생활하면서 열리지잖아요. 정도의 차이고, 유아기적 특성이지 꼭 외동이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집단면담 2011. 1. 31)

교사들의 담론을 분석한 결과, 교사들은 외동이가 자기 중심적이라고 보고 있으나 자기 중심적인 성향은 유아기적 특성이며 교사들, 어른들의 선입견이라고 보고 있었다. 또한 외동이의 자기 중심적인 성향은 가정교육과 연계되어 이루어져야 하며, 커가면서 이러한 성향이 줄어들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2) 나눔이 부족한 아이

외동이들은 가정에서 부모님들하고 또래들과 지내는 것처럼 나누고, 공유하고, 양보하고, 순서를 지키고, 주고받는 경험보다는 주로 일방적으로 받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교사들은 전반적으로 외동이들이 나눔이 부족한 아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교사들의 생각은 다음의 면담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원 교사: 7세가 되면 거의 모든 유아들이 각종 기관을 접하고 유치원에 와서인지 나눠 쓰고, 공유하고 그런 개념들이 생겨서 가능한데 어릴수록 특히, 4세나 5세 아이들은 그런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꼭 외동이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연령별 특징이긴 한데 외동이들은 혼자서 모든 것을 독차지해서 생활하다가 점점 친구들을 접하면서 나눠 쓰고 그래야 한다는 개념이 생기긴 하는데 처음에 받아들이기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집단면담 2011. 3. 2)

명 교사: 동생이 있는 유아들은 거의 그런 점이 없는데 외동이들은 동생이 생기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은 쌓기영역에서 유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닌텐도 오락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형제가 있는 유아들은 거의 번갈아가면서 놀이를 한다고 하는데 한 외동이 남자아이가 아주 자랑스럽게 “난 동생이 없어서 나 혼자만 하는데!”하며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머지 친구들은 그걸 부러운 듯이 쳐다보고...

(집단면담 2011. 3. 2)

윤 교사: 저는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제과로 현장학습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현장학습 후 선물로 과자를 다섯 박스 선물 받았어요. 제가 차 안에서 아이들에게 “동생들에게 과자 선물 줄 사람?”하고 물어보았는데 대부분이 손을 들지 않는 거예요. 제가 당황해서 “동생들과 함께 과자를 나눠 먹고 싶은 사람?”하고 다시 물었는데 공교롭게도 외동이인 아이들이 손을 들지 않은 거 있죠! ‘나눔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외동이에게 “동생들에게 과자를 나눠주면 어떨 것 같아?” 하고 물어보았더니 “기분은 좋은대요, 제건 나눠주기 싫어요.” 하고 대답하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양보’와 ‘배려’라는 두 글자를 다시 알려줘야겠다 생각했어요.

(집단면담 2010. 12. 18)

교사들의 담론을 분석한 결과, 교사들은 외동이들은 혼자 키워져서 나누고, 공유하고, 순서를 지키고, 양보하고, 주고받는 이러한 사회적 기술이 부

족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교사들은 외동아이가 또래관계에서 사회성을 기르기 위해서 함께 공유하고,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적 기술을 길러줘야 한다고 이야기 하였다.

한 교사: 우리 반 여자 외동아이는 악세사리, 스티커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남에게 더 잘 주는 경향이 있어요. 친구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선 풍요롭게 자라서인지 친구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고 그렇게 습관이 된 것 같더라고요. (집단면담 2011. 2. 18)

박 교사: 꼭 외동이라고 양보를 안하고, 나눠쓰지 않고 그런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반 한 여자 아이는 자기 것을 남에게 더 잘 주려고 하더라고요. 같이 놀이하면서 끼어들고 싶어서 그런 것 같기는 해요. 친구들에게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 같기도 하구요. (집단면담 2011. 1. 31)

교사들은 외동아이의 공유하고, 양보하고, 주고받는 사회적 기술이 외동아의 전형적인 특징이 아니라 외동아의 개인적 성향, 자라온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이처럼 사회적 기술과 관련된 부분은 외동아의 개인적 특성과 가정환경에 의해 변화할 수 있으므로 또래 친구들과의 협력, 가정과의 연계와 부모교육을 적극 활용하여 지도되어야 할 것이다.

3) 부모에게 의존적인 아이

외동아이는 형제자매가 없으므로 부모들의 관심이 외동아에게 집중되고 자녀의 행동을 엄격하게 규제하거나 모든 주위 환경으로부터 외동아는 과보호를 받기 쉬운데, 이러한 영향으로 외동아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부모에게 의존하게 된다고 교사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최 교사: 저는 5, 6세 혼합연령을 맡고 있는데 만 3세임에도 불구하고 외동이들은 옷 입고 벗기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지식적인 면은 또래에 비해서 월등히 빠른 것 같은데... 만 3세인데 광합성 같은 단어를 선뜻 얘기하고 음식을 보며 단백질, 탄수화물, 비타민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유아는 자기 옷에 있는 지퍼를 못 올리고 단추 끼우기 이런 것들을 잘 못해요. 항상 할머니가 대신 해주시더라고요. (집단면담 2010. 12. 18)

명 교사: 우리반 여자 외동이 한 명은 다른 외동이들에 비해 조금 더 의존적이었는데요. 자기 스스로 하는 걸 많이 두려워하는 아이였어요.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거나 불편한 점을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꺼려해서 그런 얘기를 잘 못해서 하루는 엄마에게 집에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메모지에 대신 써줘서 가져오셨더라고요. 자기가 앉는 자리가 불편해서 다른 자리로 바꿔 달라는 내용이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남자 아이들은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여자 아이들 중에서도 특히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여자 아이들이 대체로 더 의존적인 것 같아요.

(집단면담 2011. 1. 25)

외동이는 부모의 관심이 외동이에게 집중되고 외동이를 자녀로 둔 부모는 무슨 일이든 혼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상대적으로 박탈하고 있으며 무엇이나 성인의 도움이나 지시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부모에게 의존하는 성격을 형성하는 원인이 된다고 교사들은 이야기하였다.

4) 교사의 관심을 받고 싶은 아이

외동이는 부모의 충분한 관심과 물질적, 정신적 배려 및 기대를 한 몸에 받기 때문에 유치원에 와서도 교사의 관심을 충분히 받고자 다양한 행동으

로 표현하고 있다. 다음의 면담사례를 통해 외동아이가 교사의 관심을 받고 자하는 행동을 알아볼 수 있다.

최 교사: 내가 보기에는 남자 아이들은 특히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여자 아이들은 굉장히 교사에게 이쁨 받고자 하고, 칭찬을 받고자 하고 그런 행동들이 조금 과한 것 같아요. 자유선택활동시간에도 항상 교사를 보고 있고 칭찬을 해달라는 듯한 눈빛(웃음)으로 항상 제 주변을 맴돌아요. 제가 칭찬을 해주면 그제서야 인정받았다는 느낌이 드는지 다시 다른 활동을 하러 가는데 그래도 항상 저를 의식하며 활동하는 것 같아요.

(집단면담 2010. 12. 18)

윤 교사: 제 생각도 같은데요. 하루는 ○○란 친구가 기분이 다운되어 있는거예요. 머리가 아프다고 하고, 기분이 안좋다고 하고... 그런데 ○○는 항상 선생님을 주시하고 관심을 받고,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많은 친구거든요. ○○는 학기 초에 그런 행동들이 유독 눈에 띄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선생님들이 5세 애들한테만 예쁘다, 귀엽다 그런 표현을 쓰니까 집에 가서 엄마에게 이야기를 했더라구요. 다시 다섯 살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나한테 예쁘다고 할 것 같다고... 선생님들이 날 사랑하지 않나봐 하면서 빠지고 그러더라고 어머님께서 상담 때 말씀하시더라구요.

(집단면담 2010. 12. 18)

부모에게 외동아이는 독점적인 존재로 가정 내에서 다른 아이와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외동아의 행동 하나 하나가 집중을 받게 되고 이런 행동은 유치원에 와서도 지속된다고 교사들은 이야기 하였다. 가정에서 또래와 어울리면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배려하는 마음, 참고 견디는 인내심 등을 배울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외동아이는 유치원에서도 교사의 관심을 받고 싶어한다고 이야기 하였다.

5) 어른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아이

외동이들은 가정에서 주로 어른들과 대화하는 환경에 놓이며 어른들과의 대화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된다. 부모나 주변 어른들과 상호작용하며 어른들의 언어에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어른들의 언어적 모델링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언어적 환경 속에서 유치원에서 만나는 어른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더욱 선호하는 유아들의 모습은 다음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교사: 우리반 외동이 중 한 명은 약간 사투리를 쓰는데 부모님 두 분 다 고향이 경상도 쪽인 것 같더라구요. 억양도 그러한데다가 부모님과 상호작용할 시간이 많아서인지 가끔 어른들의 말투를 흉내내곤 해요. 억양뿐만이 아니라 어른들이 사용하는 단어를 써서 가끔 아이들이 못알아듣고 저에게 와서 묻곤 하는데 제가 봐서는 사투리 때문만이 아니라 단어 자체도 아이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의 말인데 그 아이는 그런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친구가 잘못하면 “(혀를 차며) 그러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며 전형적인 할머니, 엄마들의 말투를 사용할 때면 어떻게 볼 땐 교사 입장에서도 버릇이 없어 보이거나 불쾌하거나 그럴 때도 있어요. (집단면담 2011. 2. 18)

윤 교사: 외동이들은 특히 선생님이랑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 일거수 일투족에 관심을 갖고 조그마한 것에도 조르르 달려와서 이야기하고 가고, 가끔 귀찮을 때도 있어요. (집단면담 2011. 2. 25)

인 교사: 유달리 텔레비전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우리반 외동이 중에도 있는데 이 아이는 유독 어른 드라마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른들의 말투, 특히 드라마 속 말투를 따라하는 것 같아요. 유행했던 드라마 중에서 “○○○씨, 자넨 언제부터 그렇게 예뻐나?” 이런 거를 흉내내면서

친구들에게 와서 쓴다던가 역할놀이 시간에 자연스럽게 “여보”, “자기”
이런 말들도 또래들보다 서슴없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집단면담 2011. 3. 5)

교사들은 외동아이가 주로 어른들과 생활하면서 어른들의 말투를 사용하며 유치원에서는 교사와 상호작용하려고 한다고 이야기 하였다. 외동아이가 어른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교사들의 견해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보는 교사들도 있었다. 다음의 면담에서 교사들의 이러한 견해가 잘 나타나 있다.

명 교사: 외동아이는 어렸을 적부터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어야 하니까 어른들과 이야기 하면서 문제 해결도 스스로 해가고 생각의 깊이가 또래들보다 깊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집단면담 2011. 3. 2)

전 교사: 유치원 아이들은 선생님을 조금 두려워 하는데 외동아이는 집에서부터 할 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와 상호작용을 많이해서인지 성인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른들에게 잘 물어보기도 하고... 저는 이런 것은 앞으로 살아가는데 있어서 어떤 면으로는 장점인 것 같아요.

(집단면담 2011. 3. 2)

2. 외동이 학부모에 대한 교사들의 생각

교사들의 담론을 통해 외동이 학부모만의 공통된 특징이 나타났고 그 내용을 분석한 결과 ‘첫 아이 학부모와 비슷해요’, ‘확인받고 싶어해요’,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 양육방식이 달라요’로 유목화하여 나타낼 수 있었다.

1) 첫 아이 학부모와 비슷해요

외동이와 만이는 적어도 일정기간 동안은 부모에게 외동이로서, 혹은 만이의 경우, 부모들은 아동양육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더욱 불안하게 되고, 따라서 아동의 행동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비현실적으로도 한다(백경숙, 2003). 다음의 교사들 이야기 속에서 첫아이 학부모와 외동이 학부모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홍 교사: 형제아 학부모 중에서도 첫째인 학부모들은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런 경우들이 특별히 외동이 엄마라고 나타난다기보다는 자녀를 처음 키우는 학부모들의 공통된 특징 같아요(모두들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임). 아이의 성장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뭐든지 처음 겪다보니깐 비교대상이 없고 평균적인 발달기준도 모르고 하니까 더욱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집단면담 2011. 1. 31)

박 교사: 실제로 첫째 어머님들은 상대적으로 둘째, 셋째를 가지신 어머님들보다 예민한건 사실이에요. 둘째 어머님들은 아이들이 다쳐서 전화하거나 그러면 오히려 “선생님, 그런 걸로 전화 안주셔도 돼요. 놀다보면 다칠 수도 있죠.” 이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선생님들 웃음). 첫째 학부모님들은 많이 다쳤는지, 흥터가 남지는 않는지, 약은 무엇을 발라줬는지 걱정이 많으시죠. 물론 학부모들의 개인 차이는 있지만 외동이, 첫째 학부모님들은 걱정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둘째를 낳으시면 다들 유해지시는 것 같아요. 다들 둘째, 셋째들을 낳으셔야 할텐데...(일제히 웃음).
(집단면담 2011. 1. 31)

명 교사: 외동이 학부모는 내 아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무래도 있죠. 둘째를 낳았으면 첫째 때 실패(웃음)했던 부분을 만회할 여지가 생기는데 외동이에서 실패를 하면 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해 좀더 잘되게, 조심스럽게 그렇게 조

바심을 내면서 생활하는 것 같아요. 하나만 있는 경우 이런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첫 아이 학부모와 같아요. 아무래도 처음이니까 시행착오를 겪어가는 과정은 외동이 학부모와 같죠.

(집단면담 2011. 3. 2)

송호경(2004)의 연구에서는 첫 아이에게는 어머니의 불확실한 지식이나 태도 때문에 시행착오적 실수를 많이 하고, 불안감을 표시하며, 과잉보호적인 양육태도를 취하고, 지도성과 양보의 미덕을 요구하게 되나, 둘째 혹은 셋째 아이에게는 어머니의 육아 경험이 풍부해져 자녀를 자신 있게 키우며, 각자의 생활에 책임을 강조하며 연령의 상하에 따라 윗사람에게 순종을 요구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교사들은 첫 아이 학부모와 외동이 학부모가 비슷한 점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2) 확인받고 싶어해요

외동이는 형제자매가 없으므로 부모들의 관심이 외동이에게 집중되고 자녀의 행동을 엄격하게 규제하거나 모든 주위 환경으로부터 과보호를 하기 쉽다. 다음의 면담사례를 통해 외동이 학부모가 형제아 학부모에 비해 걱정도 많고 질문도 많으며 본인의 양육과 교육에 대해 끊임없이 확인받고 싶어함을 볼 수 있다.

원 교사: 외동이 학부모들은 자기 자녀에 대한 애착이 강한 것 같아요. 그게 좋은 영향을 주면 좋게 드러나는데 나쁘게 영향을 주면 조금 유별나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유치원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고 호응해주는 것은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간섭으로 다가와요. 그냥 편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까칠하게 받아 들이시는 부분들도 있고... 사실 외

동이를 지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학부모 지도가 더 힘들 때가 많아요. 비교대상이 없으니까 자신의 자녀가 진실인걸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본인의 교육에 대해 옳은건지 틀린건지 확인받고 싶어하세요. (집단면담 2011. 3. 2)

전 교사: 걱정이 많으세요. ‘이렇게 교육하는게 맞는 건가요?’ , ‘집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건가요?’ , ‘이럴 땐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상담을 하다보면 이런 것들을 재차 묻고 질문하시고 그러세요. (집단면담 2011. 3. 12)

외동이 학부모가 형제아 학부모에 비해 걱정도 많고 질문도 많으며 끊임 없이 교사에게 확인받고 싶어함을 대다수의 교사가 인식하고 있었으나 학부모 개인적 성향의 차이일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교사들도 있었다. 이에 대한 면담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한 교사: 자신의 자녀에게 누구나 다 애착을 가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학부모 개인의 성향 차이라고 봐요. 형제아 학부모 중에서도 예민하신 분은 굉장히 예민하시잖아요. 아이가 한 명이건 두, 세 명이건 이건 간에 개인의 성향인 것 같아요. (집단면담 2011. 3. 2)

윤 교사: 우리들도 어떤 선생님은 같은 이야기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다른 선생님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잖아요. 걱정이 많고 마음에 담아두고 하는 것은 개개인의 성격 차이인 것 같아요. (집단면담 2011. 3. 12)

3)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 양육방식이 달라요

최근에 이르러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로 인한 가족 구조의 변화는 어머니

의 취업이 양육태도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어머니가 가정과 직장 사이에서 느끼는 역할 긴장이나 갈등, 자신의 일에 대한 만족감, 그리고 일하는 동기 등에 따라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며 이는 자신의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다음과 같다.

윤 교사: 직장을 가지신 분이나 직장을 갖고 계시지 않은 분이나 외동이 학부모님들은 똑같이 걱정이 많으시죠. 아이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많으시고... 직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이에 대해 항상 안쓰러워하시고, 애달파하시고... 그래서인지 심적으로 다 못 쏟는다고 생각하셔서 물질적으로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집단면담 2010. 12. 18)

최 교사: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직장을 가졌다고 해서 관심이 없거나 그러시진 않는데 맞벌이 하시는 어머님들께서는 이상한 죄책감 같은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육아에 대해서 더 스트레스도 받으시는 것 같고요. 직장에 다니지 않는 어머님들께서는 자녀에게 더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교사와는 연락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직장 엄마들에 비해 직장에 다니지 않는 어머님들께서 좀 더 예민하세요. 조금만 아파도 안 보내시고, 너무 춥거나 눈이 오거나, 비가 와도 안 보내시고... (집단면담 2010. 12. 18)

교사들의 담론을 분석한 결과, 일하는 학부모들은 자신의 자녀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함께 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미안함과 죄책감이 있다고 본 반면 학부모들의 교육수준이 더 높고 자신의 일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학부모의 경우는 더 여유 있고 자신의 자녀를 잘 보살펴주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이 교사: 부모님 중 특히 어머니가 자신의 일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준 경우 아이들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문화생활도 더 많이 다니고 여행도 많이 하고... (집단면담 2011. 1. 31)

한 교사: 엄마가 전문직인 경우 외동이들은 확실히 윤택한 삶을 누리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자신의 일과 육아를 병행하려고 해서 하나만 낳은 경우가 대다수인 것 같아요. (집단면담 2011. 2. 18)

교사들의 담론을 분석한 결과, 일하는 외동이의 학부모들은 자신의 자녀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함께 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미안함과 죄책감이 있다고 본 반면 학부모들의 교육수준이 더 높고 자신의 일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외동이 학부모의 경우는 더 여유 있고 자신의 자녀를 잘 보살피려 주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3. 외동이를 효과적으로 지도하는 방법

교사들의 담론 속에서 외동이를 효과적으로 지도하는 방법으로는 ‘칭찬과 격려를 통한 감정 교류하기,’ ‘다양한 연령과 함께하는 기회 마련하기,’ ‘친구들과 모둠수업의 기회 제공하기’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1) 칭찬과 격려를 통한 감정 교류하기

외동이들은 가정에서 일대일의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호작용함에 있어 민감하게 받아들인다고 교사들은 생각하고 있었다. 형제아와는 다르게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거의 부모들이 수용하고 있으므로 칭찬, 격려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고 여기고 있었다. 그와 관련하여 교사들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인 교사: 우리반 ○○는 소심하고 스스로 마음에 따라서 잘 되지 않으면 의기소침 해지고 그랬거든요. 줄넘기를 자기는 못한다고 풀이 죽어 있어서 제가 하나를 넘더라도 진짜 잘한다고 칭찬을 계속해서 해주니까 어느새 으쓱해져서 잘하고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외동이들은 소심하고 여리고 칭찬에 많이 약한 것 같아요. (집단면담 2010. 11. 20)

윤 교사: 외동이들은 실패를 많이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실패할 수도 있다, 실수할 수도 있다, 괜찮다 하며 이야기를 자주해주어야 할 것 같아요. 용기를 잃지 않게끔 하면서 양보와 배려를 기르게 지도해주어야 할 것 같아요. (집단면담 2010. 12. 18)

이와 같이 교사들은 유아에게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칭찬과 격려를 함으로써 외동이와 관계를 형성해나가야 한다고 이야기 하였다. 교사와 외동이 간의 이해와 공감을 통해 감정적 교류가 잘 일어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양보와 배려심을 기를 수 있다고 보았다.

박 교사: 우리 반 한 외동이에게 칭찬을 해주었더니 부쩍 유치원에 오는 것을 즐거워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유치원에 적응하는 것을 힘들어하더니 이제는 주말에도 유치원에 오고 싶어 한다고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집단면담 2011. 1. 31)

명 교사: 칭찬은 어른들도 춤추게 하잖아요.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로요. 교사들이 조금만 아이들의 입장에서, 외동이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칭찬과 격려를 해주다보면 아이들이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집단면담 2011. 3. 2)

교사들은 유아에게 칭찬과 격려하기 방법을 사용하여 외동이의 태도가 많이 변한 것을 인식하며 교사와 유아간의 상호작용의 태도가 긍정적인 모델로 작용한 것으로 보았다. 외동이의 긍정적인 사회성 발달을 위해 교사의 칭찬과 격려를 통한 감정적 교류 방법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교사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2) 다양한 연령과 함께하는 기회 마련하기

교사들은 유아들이 혼자서 지내는 만큼 다양한 연령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의도적으로 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혼합 연령의 교실 구성, 다양한 연령과의 만남의 기회 제공, 다양한 연령이 함께하는 정기적인 기회 제공을 이야기 하였다.

전 교사: 외동이는 혼자이다 보니까 사실 형제애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외동이와 형제애의 차이는 무엇보다도 경험의 부족 같아요. 요즘에는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놀이터 문화도 많이 사라졌고 우리 때와는 다르게 다양한 연령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의 노출도 많이 사라졌구요. 유치원에서라도 다른 반과의 교류를 통해서 그런 기회를 제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집단면담 2010. 11. 20)

박 교사: 제가 전에 근무했던 사립유치원에서는 월요일마다 애국조회를 했거든요. 모든 반이 함께 모여서 형님, 동생이 두 명씩 엇갈려 앉아서 놀이를 했는데요. 큰 반, 어린 반이 함께 하는 경험이 있어서인지 유아들이 다 친하게 지냈었어요. 차량에서의 교류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기회도 생기고... (집단면담 2010. 11.20)

이처럼 외동이가 형제아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교사는 유치원에서 혼합 연령의 교실 구성, 다양한 연령과의 만남의 기회 제공, 다양한 연령이 함께하는 정기적인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였다.

원 교사: 외동이들이 가정에서 경험하기 힘들면 유치원에서라도 의도적으로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유치원에서만은 한계가 있으니까 가정에서도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도록 저는 상담 때 종종 말씀 드려곤 해요. (집단면담 2011. 3. 2)

이 교사: 유치원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과의 연계도 중요한 것 같아요. 무엇이든지 가정과 함께 해야 효과도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집단면담 2011. 3. 12)

유치원에서 다양한 연령과 함께하는 구체적인 방법 외에 가정에서도 유치원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연령과 함께하는 다양한 기회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져야 교육적 효과가 더욱 커진다고 교사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3) 친구들과 모둠수업의 기회 제공하기

다양한 연령과의 교류 외에도 교사들은 동일 연령을 지도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교실 내에서의 다양한 지도 사례들을 이야기 하였다. 외동이를 효과적으로 지도하는 방법 중에서 친구들과의 모둠수업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느낌 공유하기, 사회적 관계 형성하기 등을 이야기하였는데 그 사례는 다음과 같다.

홍 교사: 요즘에는 유아들이 유치원에서 지내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개별적인 성향은 집에 가서 더 드러나기는 해도 유치원에서 하루종일 있으면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교육적인 부분으로 협동적인 과제를 제시하고 모둠활동의 기회를 많이 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우리 몸 전지에 표현해보거나 시장놀이 할 때처럼 간판의 제목을 함께 정하고 함께 구성한 것 처럼요. 워낙 초, 중, 고등까지 개인적으로 지낼 시간이 많으니까 유치원 시기만이라도 이런 즐거운 활동들을 많이 했으면 해요.

(집단면담 2011. 1. 31)

이 교사: 협동활동 수업을 많이 했으면 해요. 그룹으로 모여서 토의도 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조정하기도 하고,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말하는 기회도 생기고...

(집단면담 2011. 2. 18)

한 교사: 4, 5 명 정도 이질적인 성향의 아이들을 섞어서 모둠수업의 기회를 많이 주는거예요. 정해진 모둠 안에서 자신의 의견을 한 번씩 이야기하게 하고... 그러면 교사도 지도하기 편해지고 자기 모둠 내의 끈끈한 그 무언가도 생기고...

(집단면담 2011. 3. 2)

유치원에서도 이와 같이 친구들과의 모둠수업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유아의 사회적 관계 기술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교사들은 이야기 하였다.

명 교사: 얼마 전에 나왔던 교육부 자료 중에 사회성 발달을 돕는 협동활동 프로그램 책자에 친구들과 함께하는 협동활동이랑 동화자료, 가정과의 연계자료 이렇게 잘 되어 있더라구요. 참고해서 지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집단면담 2011. 1. 25)

원 교사: 협동활동 프로그램 책자를 읽어본 적이 있는데 미술활동, 신체활동, 토의 활동, 동화 이렇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어

있어 방법을 잘 모르는 선생님이 있으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집단면담 2011. 1. 25)

유아의 모둠수업 활용을 위하여 구체적인 교육부 활동자료를 제시하며 방법적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준 교사도 있었다. 유치원 활동, 가정 연계활동, 동화를 통한 모둠 수업의 통합적 적용 사례들에 대해 교사들은 현장에서의 활용방안에 대해 이야기해주었다.

4. 외동이 양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생각과 기대

개별면담을 통해 나타난 외동이 양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생각과 기대로는 ‘긍정적인 면 바라봐주기’, ‘자신감 갖게 해주기’, ‘친구 사귀는 기회 제공해주기’로 유목화 할 수 있었다.

1) 긍정적인 면 바라봐주기

외동이가 된다는 것은 단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외동이는 부모의 관심을 독차지하게 되어 너무 지나치게 과보호 받을 우려가 있고, 부모의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정서적인 불안이 클 수 있으며, 형제가 없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학습 경험, 특히 사회성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학부모들의 담론에서도 자신의 자녀에 대한 사회성을 가장 큰 걱정으로 지적하였다.

학부모 D: 혼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른스러워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또래들과 어울리는 것 보다 할머니, 엄마, 아빠와 주로 있다보니까요. 사회성을

길러줘야 할텐데 이걸 앞으로도 겪어 나가야 할 문제 같아요. 외동부모의 가장 큰 걱정이자 단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개별면담 2010. 12. 11)

학부모 H: 저는 어쩌다 보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를 낳게 되었는데요. 아이를 기르는데 현실과 이상은 매우 다르더라고요. 지금와서 생각해보면 조금 준비된 상황에서 낳았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시행착오도 겪지 않고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를 보는 사회적 시선이 조금 힘들기는 하죠. 아무래도 외동딸이라고 하면 곱게 자랐을 것 같고, 다 해줄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긴 하니까요.

(개별면담 2011. 1. 14)

학부모 E: 외동이라하면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 것 같고, 배려심이 없을 것 같고, 혼자 커서 버릇이 없을 것 같고 그렇잖아요. 저도 우선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형제가 있는 틈에서 북적북적 자라난 아이들과는 뭔가가 틀릴 것 같죠. 사회성도 없어 보이고... (개별면담 2011. 1. 15)

학부모들의 담론을 분석한 결과, 외동이를 자녀로 둔 학부모 본인들도 외동이들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며, 배려심이 부족하며, 사회성이 또래에 비해 떨어질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반면에 학부모들은 외동이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것은 사회적인 편견일 뿐 실제로는 학부모, 교사, 사회적 측면의 반편견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다.

학부모 I: 실제로 외동이들은 정서적 측면으로 봤을 때 감성이 풍부하고, 표현력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혼자 자라서 그런지 사고나 판단하는 면이 어른스럽기도 하고 형제와 자란 아이들에 비해서 순수한 면도 더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런 면을 바라봐주었으면 좋겠어요.

(개별면담 2010. 12. 10)

학부모 F: 외동이가 된 상황에서 운명으로 받아들여야죠. 혼자서 사람들과도 어울

리는 법을 배워나가고 살아남는 법을 익혀가야죠. 그런데 저는 외동이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다양한 문화 생활을 경험할 수도 있고, 사람들을 더 좋아하는 것도 그렇고. 마음이 좀 더 따뜻한 것 같아요. (개별면담 2011. 2. 11)

미국의 외동이 연구학자 Newman(2001)은 외동이는 호기심이 강하고 질문이 많으며 훌륭한 일을 해내려는 내적 요구가 강하며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독점하며 자라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또래들의 유아 언어가 아니라 어른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 지적, 언어적 능력 발달면에서도 외동아이가 유리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외동이의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기대도 외동이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앨 수 있도록 학부모, 사회, 교사의 반편견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2) 자신감 갖게 해주기

외동이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학자들에 따르면, 이들은 부모의 애정이 분산되지 않고 집중되어서 지나친 애정과 과보호를 받기 쉽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능동적으로 생활하고, 역할 경험을 학습할 기회가 박탈된다. 그 결과 의존적이고 인내심이 부족하고 이기적이고 무절제하고 퇴행적인 성격을 형성하는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이상로, 1995). 학부모들의 담론에서도 이와 같은 견해를 볼 수 있었다.

학부모 G: 제가 너무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해줘서인지 능동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저는 왜 옛말 중에 '어떤 구름에 비가 섞여 있을지 모른다'고 하잖아요. ○○가 어느 방면에 재능이 있을지 모르니까 재능을 찾아주는 게 부모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경험을 많이 시켜주는 것 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개별면담 2010. 11. 6)

학부모 C: 저는 우리 ○○가 공부를 잘해서 의사, 박사가 되기보다는 즐기면서 일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것 저것 많이 시키기는 하는데 솔직히 어떻게 키워야 할지 정답이 없으니까 너무 어려워요. (개별면담 2010. 11. 13)

이와 같이 학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를 의도하지 않게 과보호하고 있었으며, 수동적인 유아로 키우고 있었다. 이와 반대로 외동이들은 부모의 충분한 관심과 물질적, 정신적 배려 및 기대를 한 몸에 받기 때문에 자신감도 있고 자존감도 높다고 이야기하며 유치원에서도 외동이에게 자신감을 길러주도록 교육할 것을 당부하는 학부모도 있었다.

학부모 J: 아무래도 외동이들은 물질적으로 큰 혜택을 받는 것 같아요. 사랑도 많이 받구요. 그래서 실패를 겪으면서 좌절하는 경험도 중요하지만 그건 앞으로 커가면서 겪을 부분이니까 지금은 자신감 있게, 나는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생활하게 커졌으면 좋겠어요. (개별면담 2010. 12. 4)

학부모 I: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아이의 재능을 찾아주는 것 같아요. 잘하는 거를 찾아줘서 나중에 본인의 일을 즐기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라도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자라줬으면 좋겠어요. (개별면담 2010. 12. 10)

학부모 F: 외동이의 장점은 깊이 있는 대화를 아이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의 말을 잘 들어줄 수 있고 형제가 있는 아이들보다는 집중해서 기를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랑 함께 하면서 자신감,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개별면담 2011. 2. 11)

Falbo와 Polit(1986)은 성취수준에 있어서 외동이의 우수함은 나이든 아동일수록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가 한 명일 경우에는

연령의 증가에 따라 가족의 재정적 지원으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더 높은 교육과 성취를 이끌어내는 경험을 하도록 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된다. 이와 같이 학부모들도 외동자녀에 대한 자신감을 기를 수 있도록 가정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게 해주고 있었으며 유치원에서도 교사의 지도방법으로도 자신감을 기를 수 있도록 해주도록 의견을 제시하였다.

3) 친구 사귀는 기회 제공해주기

외동이에 대한 편견이나 부정적인 측면의 기저에는 외동이의 사회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다양한 친구를 사귀는 기회의 부족을 학부모들은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였다.

학부모 J: 어렸을 적에는 기관에 보내지 않으면 또래 관계형성의 기회가 적은 것 같아요. 형제가 있다 보면 고민을 털어놓고 해결해 가겠지만 커가는 과정에서 특히 어렸을 적은 유치원 교실 내에서라도 의도적으로 친구랑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개별면담 2010. 12. 4)

학부모 I: 외동이는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애를 낳고 싶어도 일하는 엄마들은 둘째 갖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막상 집에 가면 혼자고 하니까 유치원, 학교에서라도 혼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사회적 프로그램이 형성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참여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 외동이들만의 이웃 사촌이 형성되지 않을까 해요. (개별면담 2010. 12. 10)

이처럼 학부모들은 외동이의 사회성을 형성하는 기초가 되는 또래집단의 형성에 있어 사회적 측면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으며, 교육기관과 사회

적으로 친구를 사귀는 기회를 의도적으로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사회적 측면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유아가 친구 사귀는 기회를 다양하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학부모 B: 저희는 가족 모임을 자주 갖는 편이에요. 거기에 가면 사촌들이 많으니까 ○○가 어울리면서 끈끈한 가족애도 느끼고 하면서 친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이다음에 크면 그래도 남는 것은 엄마, 아빠 다음으로 사촌들이 아닐까 싶어요. (개별면담(2010. 12. 4))

학부모 D: 평일에는 시간이 나지 않으니까 저는 주말을 활용해요. 주말에 놀이터에 나가면 같은 유치원 아이들이 나오더라고요. 같이 실컷 놀게 하고, 집에서 형제끼리 놀이하는 문화가 안되니까 주말에라도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하고 싶어요. (개별면담 2010. 12. 11)

학부모 E: 저는 같은 반 아이와 함께 학원을 보내고 있어요. 요즘은 방승댄스를 하고 싶다고 해서 함께 보냈는데 공통 화제도 있어서인지 부쩍 같이 배우는 아이 얘기를 집에 와서도 많이 하구요. 끝나고 서로 왕래도 하면서 친하게 지내게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개별면담 2011. 1. 15)

이처럼 친구 사귀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있어 학부모들은 가정에서 친척 모임 참여하기, 주말 활용하기, 사교육 함께 다니기, 방과 후 집에 모여 놀이하기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친구 사귀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교육현장에서 볼 수 있는 외동이에 대한 교사들의 생각은 어떠한지를 알아보고, 그의 학부모에 대한 교사들의 생각을 교사들의 담론을 통하여 분석함으로써 유아교육현장에서 외동이를 지도하는 방법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학부모와의 개별면담을 통하여 학부모가 외동이 자녀에게 갖는 양육에 대한 생각과 기대에 대해서도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논의 및 결론

1) 외동이에 대한 교사들의 생각

교사들의 담론 속에서 나타난 외동이에 대한 교사들의 생각은 ‘자기 중심적인 아이’, ‘나눔이 부족한 아이’, ‘부모에게 의존적인 아이’, ‘교사의 관심을 받고 싶은 아이’, ‘어른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아이’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된 외동이에 대한 교사들의 생각은 소제목에서 나타나듯이 긍정적이지 못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교사들은 외동이에게 선입견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

첫째, 교사들은 외동이들은 다른 유아들에 비해 이기적이고 고집이 세며, 욕심이 많다고 이야기 하였다. 최송미(2002)의 연구에 의하면 외동이는 같이 생활하는 형제가 없어 경쟁 상대가 없고 성인들과 많이 접촉하게 되므로

조속하고 영리해지는 반면에 어렸을 때 받았던 특별한 관심을 자라서까지 받으려 하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열등감이 더욱 조장되기 쉬운 성향을 지니고 있다. 교사들의 이야기 속에서 외동이는 자신의 뜻대로 활동을 하려는 성향이 강하며 항상 자신에게 관심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유치원에 와서도 자신이 중심이 되어 활동하길 원하는 것 같다고 교사들은 지각하고 있었다. 반면 교사들은 외동이가 자기 중심적이라고 보고 있으나 자기 중심적인 성향은 유아기적 특성이며 교사들, 어른들의 선입견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었다. 이러한 외동이의 자기 중심적인 성향은 가정교육과의 연계가 필요하며, 유아가 커가면서 이러한 성향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둘째, 외동이들은 가정에서 부모님들과 또래들과 지내는 것처럼 나누고, 공유하고, 양보하고, 순서를 지키고, 주고받는 경험보다는 주로 일방적으로 받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교사들은 전반적으로 외동이들이 나눔이 부족한 아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교사들의 생각은 외동이는 사회적으로 형제아에 비해 미숙한 부분이 많음을 보고한 연구결과(도미향, 2005; 송나리, 1992; 이상로, 1995)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러한 외동이들의 사회적 기술 부족은 또래관계에서 사회성을 길러주도록 해야 한다고 교사들은 이야기 하였다. 한편 교사들은 또래와 공유하고, 양보하고, 주고받는 외동이들의 사회적 기술이 외동이의 전형적인 특징이 아니라 외동이의 개인적 성향, 자라온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외동이들의 사회적 기술과 관련된 부분은 또래 친구들과의 협력, 가정과의 연계와 부모교육을 적극 활용하여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외동이는 부모에게 의존적인 아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외동이는 형제, 자매가 없으므로 부모들의 관심이 외동이에

게 집중되고 자녀의 행동을 엄격하게 규제하거나 모든 주위 환경으로부터 외동이는 과보호를 받기 쉬운데,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외동이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부모에게 의존하게 된다고 교사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교사들의 인식은 유구종과 조희정(2009)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외동이는 부모의 관심이 외동이에게 집중되고 외동이를 자녀로 둔 부모는 유아가 무슨 일이든 혼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상대적으로 박탈하고 있다고 보았다. 외동이들은 성인의 도움이나 지시를 받아서 행동을 하는 성향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점이 어떤 일을 할 때 부모에게 의존하는 성격을 형성하는 원인이 된다고 교사들은 이야기 하였다.

넷째, 외동이는 부모의 충분한 관심과 물질적, 정신적 배려 및 기대를 한몸에 받기 때문에 유치원에 와서도 교사의 관심을 충분히 받고자 다양한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교사들은 이야기 하였다. 부모에게 외동이는 독점적인 존재로 가정 내에서 다른 아이와 비교가 되기 때문에, 외동이의 행동 하나 하나가 집중을 받게 되고 이런 행동은 유치원에 와서도 지속된다고 보았다. 교사들은 외동이가 가정에서 또래와 어울리면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배려하는 마음, 참고 견디는 인내심 등을 배울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유치원에서도 교사의 관심을 받고 싶어한다고 이야기 하였다.

마지막으로 외동이들은 가정에서 주로 어른들과 대화하는 환경에 놓이며 어른들과의 대화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된다고 교사들은 이야기 하였다. 부모나 주변 어른들과 상호작용하며 어른들의 언어에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어른들의 언어적 모델링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 교사들은 외동이들이 주로 어른들과 생활하면서 어른들의 말투를 사용하며 유치원에서는 교사와 상호작용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이야기 하였다. 외동이들이 어른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교사들의 견해도 있지만 성인에 대한 두려움

이 없는 것, 어른들과 이야기 하면서 문제 해결력도 기르고, 생각의 깊이도 또래보다 깊은 것을 이야기하며 긍정적으로 보는 교사들도 있었다.

2) 외동이 학부모에 대한 교사들의 생각

교사들의 담론을 분석한 결과 외동이는 그들만의 공통된 특징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동이 학부모만의 공통된 특징이 나타났으며, 그 내용을 분석한 결과 ‘첫 아이 학부모와 비슷해요’, ‘확인받고 싶어요’,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 양육방식이 달라요’로 유목화하여 나타났다.

첫째, 외동이와 만이는 적어도 일정기간 동안은 부모에게 외동이로서, 혹은 만이로서 생활하게 된다. 외동이와 만이를 자녀로 둔 부모들은 아동양육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양육방식에 있어 더욱 불안하게 되고, 따라서 자녀의 행동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비현실적이도록 한다(백경숙, 2003). 교사들의 담론을 분석한 결과 교사들은 첫아이 학부모와 외동이 학부모의 공통점이 있다고 이야기 하였다. 송호경(2004)의 연구에서는 첫 아이에게는 어머니의 불확실한 지식이나 태도 때문에 시행착오적 실수를 많이 하고, 불안감을 표시하며, 과잉보호적인 양육태도를 취하고, 지도성과 양보의 미덕을 요구하게 되나 둘째 혹은 셋째 아이에게는 어머니의 육아 경험이 풍부해져 자녀를 자신 있게 키우며, 각자의 생활에 책임을 강조하며 연령의 상하에 따라 윗사람에게 순종을 요구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자녀 수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다름을 알 수 있었으며 교사들은 첫 아이 학부모와 외동이 학부모가 비슷한 점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외동이는 형제자매가 없으므로 부모들의 관심이 외동이에게 집중되고 자녀의 행동을 엄격하게 규제하거나 모든 주위 환경으로부터 외동이를 과보호

하기 쉽다. 교사들의 담론을 분석한 결과 외동이 학부모들은 형제아 학부모에 비해 걱정도 많고 질문도 많으며 본인의 양육과 교육방식에 대해 끊임없이 확인받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지나친 애정이나 관심은 아동 스스로 능동적인 역할을 학습할 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에, 아동에게 의존성이나 이기심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시킨다고 알려져 왔으나, 최근의 연구들은 부모의 관심이 아동의 지적 발달이나 성취에 있어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강조하고 있다(Falbo & Cooper, 1980; Blake, 1981). 외동이 학부모가 형제아 학부모에 비해 걱정도 많고 질문도 많다고 대다수의 교사가 인식하고 있었으나 학부모 개인적 성향의 차이일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교사들도 있었다. 따라서 외동이에 대한 학부모는 명확한 부모 교육 지침이나 자녀양육의 방법에 있어 사례를 접할 기회가 부족하므로 외동이를 효과적으로 지도하는 방법에 대한 부모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

유구종과 조희정(2009)의 연구에서는 유아기의 사회성 발달이 전인교육의 기초가 되며, 특히 나이가 어린 유아의 경우 사회보다는 가정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 발달과 인격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볼 때, 지속적으로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 외에 백경숙과 이무영(2004)의 연구에서도 유아기 외동이 가정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가 실시되었고 부모교육의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셋째, 최근에 이르러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로 인한 가족 구조의 변화는 어머니의 취업이 양육태도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어머니가 가정과 직장 사이에서 느끼는 역할 긴장이나 갈등, 자신의 일에 대한 만족감, 그리고 일하는 동기 등에 따라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

며 이는 자신의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교사들의 답론을 분석한 결과, 일하는 학부모들은 자신의 자녀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함께 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미안함과 죄책감이 있다고 본 반면 학부모들의 교육수준이 더 높고 자신의 일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학부모의 경우는 더 여유 있고 자신의 자녀를 잘 보살펴주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송호경(2004)의 연구에 의하면 취업모의 경우는 자녀 및 어머니 자신에 관련된 변인 이외에 취업에 관련된 배경, 즉 직업 만족도, 직업의 종류, 취업동기, 근무시간 등에 영향을 받으며, 아버지의 취업에 대한 지지 정도 등이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주게 된다고 보았다. 직장에 다니는 학부모는 많은 시간을 유아와 함께 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미안함과 죄책감이 있다고 본 반면 학부모들의 교육수준이 더 높고 자신의 일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학부모의 경우는 더 여유 있고 자신의 자녀를 잘 보살피 주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어머니와의 관계는 일생을 통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어머니와 자녀 간에는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유대감이 강하고, 자녀는 어머니의 사고, 태도, 행동 등을 모방하고 내면화하고 동일시함으로써 자녀의 사회화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 또한 어머니는 자녀의 사회화 과정에 직접적인 형태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어머니는 자녀가 또래와 어울릴 수 있도록 주선해 주거나, 자녀가 또래와 우정을 형성시킬 수 있도록 사회성 지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3) 외동이를 효과적으로 지도하는 방법에 대한 교사들의 생각

교사들의 답론 속에서 외동이를 효과적으로 지도하는 방법으로는 ‘칭찬과 격려하기,’ ‘다양한 연령과 함께하는 기회 마련하기,’ ‘친구들과 모둠수업의

기회 제공하기'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첫째, 외동이들은 가정에서 일대일의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호작용함에 있어 민감하게 받아들인다. 형제아와는 다르게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거의 부모들이 수용하고 있으므로 칭찬, 격려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그와 관련하여 교사들은 유아에게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칭찬과 격려를 함으로써 외동이와 관계를 형성해나가야 한다고 이야기 하였다. 교사와 외동이 간의 이해와 공감을 통해 감정적 교류가 잘 일어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양보와 배려심을 기를 수 있다고 보았으며 외동이의 자신감 발달에 교사는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임을 시사한다.

둘째, 교사들은 유아들이 혼자서 지내는 만큼 다양한 연령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의도적으로 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혼합 연령의 교실 구성, 다양한 연령과의 만남의 기회 제공, 다양한 연령이 함께하는 정기적인 기회제공을 이야기 하였다. 이처럼 외동이가 형제아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교사는 유치원에서 혼합 연령의 교실 구성, 다양한 연령과의 만남의 기회 제공, 다양한 연령이 함께하는 정기적인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였다. 교사가 직면하는 실제 교육 현장의 다양한 상황에서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효율적인 교수 전략으로 협동학습을 제시한 Kats와 Chard(1989)는 물리적 환경인 교실의 도구 및 설비와 학습의 자료가 빈약한 상황이나 교사 대 유아의 비율이 너무 높은 상황, 혼합 연령 집단의 유아를 함께 가르쳐야 하는 상황 등에서 협동학습활동이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외동이에게 혼합 연령과 함께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과 이를 위해서는 협동학습활동이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셋째, 교사들은 다양한 연령과의 교류 외에도 현장에서는 동일 연령을 지

도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교실 내에서의 다양한 지도 사례들을 이야기 하였다. 외동이를 효과적으로 지도하는 방법 중에서 친구들과의 모둠수업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느낌 공유하기, 사회적 관계 형성하기 등을 이야기하였다. 유치원에서도 이와 같이 친구들과의 모둠수업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유아의 사회적 관계 기술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교사들의 담론을 통하여 나타났다.

4) 외동이의 양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생각과 기대

개별면담을 통한 외동이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기대로는 ‘긍정적인 면 바라봐주기’, ‘자신감 갖게 해주기’, ‘친구 사귀는 기회 제공해주기’로 유목화할 수 있었다.

먼저 학부모들의 담론을 분석한 결과 외동이를 자녀로 둔 학부모 본인들도 외동이들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며, 배려심이 부족하며, 사회성이 또래에 비해 떨어질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반면에 학부모들은 외동이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것은 사회적인 편견일 뿐 실제로는 학부모, 교사, 사회적 측면의 반편견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외동이의 긍정적인 측면을 바라봐줄 것을 이야기 하였다. 미국의 외동이 연구학자 Newman(2001)은 외동이는 호기심이 강하고 질문이 많으며 훌륭한 일을 해내려는 내적 요구가 강하며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독점하며 자라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또래들의 유아 언어가 아니라 어른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 지적, 언어적 능력 발달 면에서도 외동아가 유리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외동이의 양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생각과 기대도 외동이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앨 수 있도록 학부모, 사회, 교사의 반편견적 사고

가 필요하며 긍정적인 측면을 바라봐 줄 것을 이야기 하였다.

둘째, 외동이들은 능동적으로 생활하고, 역할 경험을 학습할 기회가 박탈된다. 그 결과 의존적이고 인내심이 부족하고 이기적이고 무절제하고 퇴행적인 성격을 형성하는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이상로, 1995). 학부모들의 담론에서도 이와 같은 견해를 볼 수 있었으며, 학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를 의도하지 않게 과보호하고 있었으며, 수동적인 유아로 키우고 있었다. 이와 반대로 부모의 충분한 관심과 물질적, 정신적 배려 및 기대를 한 몸에 받기 때문에 자신감도 있고 자존감도 높다고 이야기하며 유치원에서도 외동이에게 자신감을 길러주도록 교육할 것을 당부하는 학부모도 있었다. Falbo & Polit(1986)은 성취수준에 있어서 외동이의 우수함은 나이든 아동일수록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가 한 명일 경우에는 연령의 증가에 따라 가족의 재정적 지원으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더 높은 교육과 성취를 이끌어내는 경험을 하도록 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된다. 이와 같이 외동이를 자녀로 둔 학부모들은 외동이들이 자신감을 기를 수 있도록 가정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게 해주고 있었으며 유치원에서도 교사의 지도방법으로 자신감을 기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교육 의견을 제시하였다.

셋째, 외동이에 대한 편견이나 부정적인 측면의 기저에는 외동이의 사회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학부모들은 외동이들이 다양한 친구를 사귀는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였다. 학부모들은 외동이의 사회성을 형성하는 기초가 되는 또래집단의 형성에 있어 사회적 측면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으며, 교육기관과 사회적으로 친구를 사귀는 기회를 의도적으로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사회적 측면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유아가 친구 사귀는 기회를 다양하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처럼 친구 사귀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있어 학부모들은 가정에서 친척 모임 참여하기, 주말 활용하기, 사교육 함께 다니기, 방과 후 집에 모여 놀이하기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친구 사귀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2. 제언

이상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 이에 따른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외동이에 대해 교사들이 가지는 생각에 대한 연구로서 교사들의 면담 자료만을 수집하여 살펴보았기 때문에 외동이들이 실제로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특성을 가지는지 알아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참여관찰을 통해 외동이들의 행동을 살펴보는 문화 기술적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외동이에 대한 교사들의 생각이 긍정적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교사들의 인식은 외동이를 지도하는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교사와 유아의 상호작용은 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할 때(Clare, 2001; Howes, 1997), 교사와 외동이의 상호작용과 교사와 형제아의 상호작용이 차이를 보이는지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참 고 문 헌

- 교육과학기술부(2008). **유치원 교육과정 해설(II) - 총론**.
- 교육인적자원부(2007). **유치원 개정교육과정 토론회**.
- 김덕희(2005). 외동이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미선(2004). 외동아와 형제아의 사회성과 자아존중감 및 학교적응 차이.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미숙(2006). 외동아와 형제아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교적응 비교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병태(1997). 외동아와 형제아의 사회성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비교 연구. 계명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숙경(1988). 외동아와 형제아의 모-자녀관계 및 사회성에 관한 비교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영천(2006). **질적연구방법론 I**. 서울: 문음사
- 김정아(1990).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관련된 제 변인에 관한 연구: 어머니와 교사의 평가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제한(1984).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관련된 제변인에 관한연구-어머니와 교사의 평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재은(1984). **아동심리학**. 서울: 박영사
- 도미향, 윤지영(2004). 외동아와 형제아가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사회정서 발달. 아동학회지 25(3); 75-85.
- 도미향(2005). 외동아의 특징과 부모의 양육태도. 한국모자보건학회 학술대회.

- 류향자(1999). 외동아와 형제아의 성격 특성과 학교 적응 비교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민영순(1984). **교육 심리학 신강**. 서울: 문음사
- 박영인(2003). 성별과 형제 유형에 따른 아동의 성격, 성역할 정체성 및 자존중감.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현주(1992). 외동아와 형제아의 성격특성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관한 비교연구.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변은수(1990). 외동아의 성격발달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와의 관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배매리 · 이규미(2006). 청소년 외동아 · 형제아의 부 · 모 · 또래애착과 자기에. 한국가족복지학, 11(1), 113-130.
- 백경숙, 이무영(2003). 유아기 외동아가정의 부모자녀특성과 부모교육. 대한부모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발표자료집.
- 백경숙, 이무영(2004). 유아기 외동아가정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부모교육연구. 1(1). 59-85.
- 보건복지부(2006). **저출산 · 고령사회 관련 교과서개편 지침자료 개발**.
- 사회정신건강연구소(2002). **친구 사귀기 캠프 프로그램 III**. 삼성생명공익재단 연구보고서 제 2002-2호.
- 송나리(1992). 외동아의 사회적 능력 및 인지 능력 발달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송호경(2004). 외동아와 다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안동현(2005). 무자녀, 외동아, 형제. 한국모자보건학회 학술대회.
- 양동두(1993). 형제 수 및 출생 순위에 따른 아동의 성격 특성 비교. 건국

-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구중, 조희정(2009). 외동이의 사회적 능력 질적 탐색.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 유구중, 조희정(2009). 외동이의 사회적 증진을 위한 부모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홀리스틱교육연구. 13(1). 85-110.
- 유영주(1986). **신가족 관계학**. 서울: 교문사.
- 이동춘(2004). 외동아와 형제아의 애착 관계 비교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상로(1995). **성격과 행동의 지도**. 서울: 중앙적성출판소
- 이성진, 이기우(1986). 한 자녀 가정의 사례와 효율적인 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대한가족협회. pp. 1~15.
- 이소희 외(2005). **현대가족복지론**. 서울: 양서원
- 이은영(2005). 형제유무와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와 스트레스 대처 행동의 차이. 전주대학교 상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현주(2000). 외동아와 형제아의 언어능력과 사회성간의 관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유자(1999). 초등학교 외동이의 협동성과 사회성 및 교우관계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채경미(2009). 외동아, 형제아의 내외통제소재에 따른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의 차이.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송미(2002). 중국 외동아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고찰. 연세교육연구. 14(1). 173-196.
- 통계청(2009). **인구, 가구 / 주요 출산력 지표**. <http://www.kostart.go.kr>
- Baskett, K. M., & Johnson, S. M.(1982). The Young child's Interaction

- with Parents versus Sibling: A behavioral Analysis. *Child Development*, 53, 643-650.
- Barbour, C. & Barbour, N. (1997). *Families, schools, and communities-building partnerships for Educating Children*. Merrill: Prentice Hall.
- Blake, J.(1981). The only child in America: Prejudice versus performance. *Population and Development Preview*, 1, 43-54.
- Blake, J., Richardson, B., & Bhattacharya, J.(1991). Number of sibling and sociabilit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3, 277-283.
- Baruch, G. K., & Barnett, R. C. (1981). Competence - Related Behaviors of Preschool Girls. *Genetic Psychology, Monography*, 103, 79-1-3.
- Bogdan, R. C., & Biklen, S. K. (1992). *Qualitative research for education: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methods*(2nd ed.). Boston, MA: Allyn & Bacon.
- Carolyn W. (2007). **외동아이 부모의 7가지 잘못**(김귀련 역). 서울: 파란 자전거. (원서 2004년 출판)
- Ching, C. C. (1982), The one child family in China: The need for psychosocial research. *Studies in Family planning*, 13, 617, 208-212.
- Clark, P. (2001). *Resent research on all-day Kindergarten*.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453 982)

- Day, L. H. (1991). Is there any socially significant psychological difference in being an only child?: The evidence from some adult behavior.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9*, 754-773.
- Falbo T., & Cooper, C. R. (1980). Young children's time and intellectual ability.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73*, 299-300.
- Falbo T. (1981). Relationship between birth category, achievement and interpersonal orient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 121-131.
- Falbo T., & Polit D. F. (1986). A only child and personality development: A quantitative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309-325.
- Falbo T. (1984). Only child: A review. In T. Falbo(Ed.), *The Single-Child Family*. New York : Guilford Press.
- Feiring, C., & Lewis, M. (1984). Only and first-born children: Difference in social behavior and development. In T. Falbo (Ed.), *The single-child family*(pp. 25-62). New York: Guilford.
- Gee, E. M. (1992). Only children as adult women: Life course events and timing. *Social Indicators Research, 26*, 183-197.
- Howes. C., & Hamilton, C. E. (1992). Children's relationships with caregivers: Mothers and child care teachers. *Child Development, 63*, 859-866.
- Jiao, S., Ji, G. & Jing, Q. (1986). Comparative study of behavioral

- qualities of only children and sibli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57*, 357-361.
- Katz, L. G. & Chard, S. C. (1989). *Engaging children's minds : The project approach*. Norwood, NJ: Alex.
- Merriam. B. S. (1994). **교육학에서의 질적 사례연구법**(허미화 역). 서울: 양서원(원서 1988 출판)
- Newman S. (2004). **외동아이가 성공한다**(김경숙 역). 서울: 이미지박스. (원서 2001 출판)
- Nyman, L. (1995). The identification of birth order personality attributes. *The Journal of Psychology, 129*, 51-59.
- Pettit, G. S., Dodge, K. A., & Brown, M. M.(1988). Early family experience, social problem solving patterns,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9*, 107-120.
- Spradley, J. P. (2006). **참여관찰법** [Participant Observation] . (신재영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원전은 1908년에 출판)
- Zajonc, R. B, & Markus, G. B.(1975). Birth order and intellectual development. *Psychological Review, 82*, 74~88.

Abstract

Discourse Analysis on Teachers' and Parents' Perceptions of Only Child

Kong, Kyung-ah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current study aims to examine teachers' opinions about only child through their teachers and parents discourse, to examine character of only child and their parents through teachers' story.

Also study is to examine teachers' idea for method to teach only child effectively and to examine expectation of parents.

The research question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What are teachers' opinions on only child?
2. What are teachers' opinions about their parents who has on only child?
3. What are teachers' opinions about method to teach only child

effectively?

4. What is parents' expectation about rearing child?

This study include group interview of 10 teachers from 16, Oct 2010 to 12, May 2011. Group interview was conducted at least one or three times. An Individual interview with 10 parents were conducted 10 times and interview was conducted additionally by telephone and e-mail in unnecessary case of concrete example and discuss.

Teacher who participate in this study has experience about teaching only child and Still they teach only child. Data was collected fully by rapid writing and recording, this data was distributed for analysis.

The result of this study was distributed only child's story, only child's parents story, method for teaching only child effectively, expectation of only child's parents. Following show this contents.

The first, an interview with teacher about only child, they think only child is more selfish, greedy compared with other children. Also they think only child was grown up alone so they don't know how to divide, co-ownership, keep their turns, yield and they don't have social skill about communication with other children. And only child don't have their brother and sister, they received overprotective from their parents. So teachers think only child is dependent of their parents.

Teachers think that an only child always received enough care, physical and mental care from their parents and relatives so only child

want to receive continuously these care from teacher in a kindergarten, Besides teachers think only child can talk with their parents and they prefer to reciprocal action with parents.

The second, only child parents character seem to first child parents and only child parents have more concern and questions compare with other parents, also they want to confirm their the method of bringing up. Also only child parents' method of bringing up is different whether they are working together or not.

The third, in discourse with teachers, the next is method of teaching only child effectively. Teacher said, After they praise and encourage only child then they have affirmative relationship with only child. Also they said, teacher should give chance of meeting various age friend only child intentionally and teacher suggest only child was received chance which has a class with friend who has various age for shape their's social skill.

The fourth, in individual interview, parents' idea and expectation of bringing up only child are followings. First There are some social prejudice about only child, so they hope just see only child without social prejudice. Also parents want that teacher makes only child confidence from various experience like their home. Except this, parents request many chances which only child meet friends.